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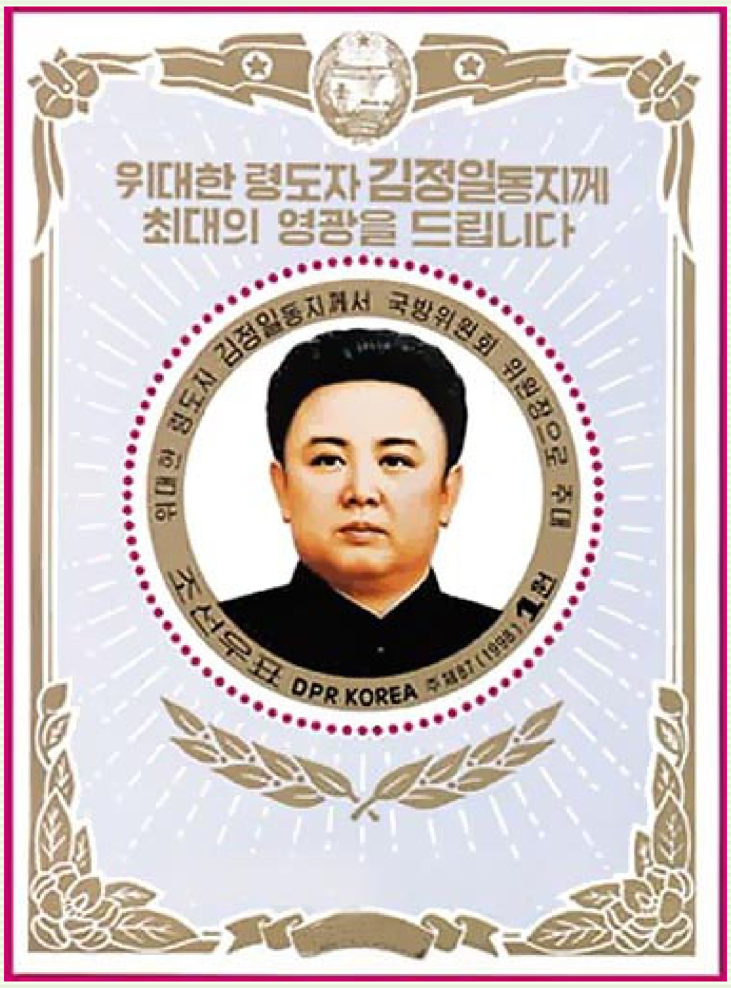
2002년 4월 10일 수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69호

국방위원장추대 9돐 경축 중앙보고대회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 9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8일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주체82(1993)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국방위원회의 권능과 지위를 새롭게 높인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시였다.

대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이 경축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조선인민은 **김정일**령도자를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심으로써 위대한 선군시대를 열어 놓고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적력량전반을 불패의것으로 강화하여 준엄한 력사의 풍랑속에서도 조국의 존엄과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었으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 나갈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그이께서 국방중시의 정치, 선군정치를 우리 국가의 기본정치방식으로 내세우시고 군사력강화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여 자위적국방력의 핵심인 인민군대를 필승불패의 강군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굳건히 받들어 나가는 무장적담보를 확고히 마련하신데 대하여 보고자는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그이의 선군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우리 인민군대는 최고사령관과 혼연일체를 이룬 충성의 대오로, 그 어떤 대적도 타승할수 있는 일당백의 전투대오로 장성강화되였으며 온 나라가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되고 위력한 국방공업이 건설되였다고 말하였다.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하여 혁명의 주체가 튼튼히 꾸려지고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나라의 사회정치적지반이 반석같이 다져진것은 **김정일**령도자의 특출한 선군령도업적이라고 보고자는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며 우리의 군력을 불패의것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 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인민군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싸움준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고 하면서 보고자는 인민군장병들은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그 어떤 원쑤들도 일격에 격멸소탕하고 우리의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수호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김영춘은 미국의 집권계층이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무력으로 압살할 침략기도를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는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우리는 미국의 극도로 오만하고 횡포무도한 도발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천백배로 대응해 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는 만약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끝끝내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허리띠를 졸라 매며 다져 온 군사적잠재력과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를 터쳐 침략자들을 모조리 격멸소탕하고 적들의 아성이 지구상 그 어디에 있건 송두리채 짓뭉개버릴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나라의 국방공업발전에 계속 큰 힘을 넣으며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자는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옳게 구현하며 안팎의 반통일세력들의 방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민족적숙원을 앞당겨 실현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2002/04/08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 합쳐 나가자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아 민족의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한 6.15공동선언을 따라 북과 남이 외세의 강경책으로 초래된 심각한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화해와 단합을 이루어 나갈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였다.

지난 5일 남조선특사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발표된 공동보도문은 북과 남이 나라에 긴장상태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동결되였던 북남관계를 원상회복하는데 합의, 부쉬 미국정권의 등장이래 조성되였던 복잡한 사태를 수습, 타개해 나갈 민족의 의지를 내외에 과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공동보도문은 외세에 의하여 조성된 엄혹한 사태를 우리 민족끼리 모여 앉아 토의, 헤쳐 나가는데 뜻을 모은것으로서 그 의의는 크며 온 겨레의 환영을 받고 있다.

남조선특사의 평양방문은 부쉬정권의 대조선압살정책의 로골화로 긴장상태가 조성되고 북남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속에서 진행되였으며 민족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와 북남관계문제를 토의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평양을 방문한 남조선특사를 접견하시였으며 김대중대통령이 보낸 친서를 전달받으시였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용순비서가 림동원특사와의 회담에 림하였다. 이것은 이번 회담이 북과 남의 두 수뇌분들의 뜻을 받들어 진행되였으며 외세에 의하여 조성된 민족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북과 남의 한겨레가 한자리에 마주 앉은 귀중한 자리였음을 보여 준다. 회담결과 발표된 공동보도문에서 밝혀 진것처럼 쌍방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되게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여 긴장상태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공동선언의 합의사항에 따라 일시 동결된 북남관계를 원상회복하기로 하였다. 또한 쌍방은 철도련결문제와 대화,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신의주－서울사이의 철도뿐아니라 새로 동해선철도와 도로를 련결하는데 합의한것은 이 사업이 우리 나라와 미국이 관할하는 군사분계선을 뚫고 민족의 혈맥을 잇는 중대한 사업으로서 정치, 군사적의미가 클뿐아니라 이 철도가 장차 로씨야와 련결될것이 예견되여 있어 경제적의의도 매우 큰 사업이다. 또한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미국의 방해소동으로 난항을 겪던 금강산관광활성화,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 등등 현안이 풀리게 됨으로써 북남관계가 정상궤도에 오르게 되였다.

이러한 성과들은 모두 외세의 무모한 강경소동과 견결히 맞서 자주성을 고수해 온 우리 나라의 견결한 립장과 북과 남이 힘을 합쳐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기울여 온 노력의 결실이다.

이번 회담에 이르는 과정과 결과는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우리 민족끼리 어떻게 힘을 합쳐 나가는가 하는것이 6.15공동선언을 실천함에 있어서 초미의 문제로 되지 않을수 없으며 북과 남이 힘을 합친다면 얼마든지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여 화해단합을 도모해 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 주었다.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은 남측 특사가 평양을 방문한 3일, 3월에 진행된 조미접촉결과를 발표, 케도와의 협상재개등 미국과의 긴장상태를 풀어 나가는데서 일정한 전진이 있음을 시사하면서 우리 나라에 대한 무근거한 험담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동보도문이 발표된후 미국 조선담당특사의 평양방문문제와 조미대화재개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부쉬정권은 북과 남이 힘을 합쳐 조성된 긴장상태에 대처하며 원상회복을 합의한 이 시기 더 이상 통일을 위한 민족의 전진에 제동을 걸지 말아야 하며 부당한 조건들을 걸어 치워 조미회담에 응해 나와야 한다.

조선신보 2002/04/08

2 노작
- **김일성**주의의 독창성을 옳게 인식할 데 대하여

4 세기와더불어
- 6장 1절 남만으로 (1)

6 칭송
- 현실로 된 꿈
- 4월명절 날짜풀이 노래
- 20세기가 낳은 가장 걸출한 위인

7 구국의 소리
- 꿈같은 현실
- 구국의 소리 뉴스 – 4월 8일
- 누가 한반도평화를 지키는가
- 투쟁으로 분쇄하자

9 조선중앙방송
- 주체 91, 4월 8일 보도
- ≪동지애의 노래≫ 높이 부르며 혁명의 천만리를 끝까지 걸어 가자

11 평양방송
- 여러 단계의 혁명을 빛나게 실현하신 영도업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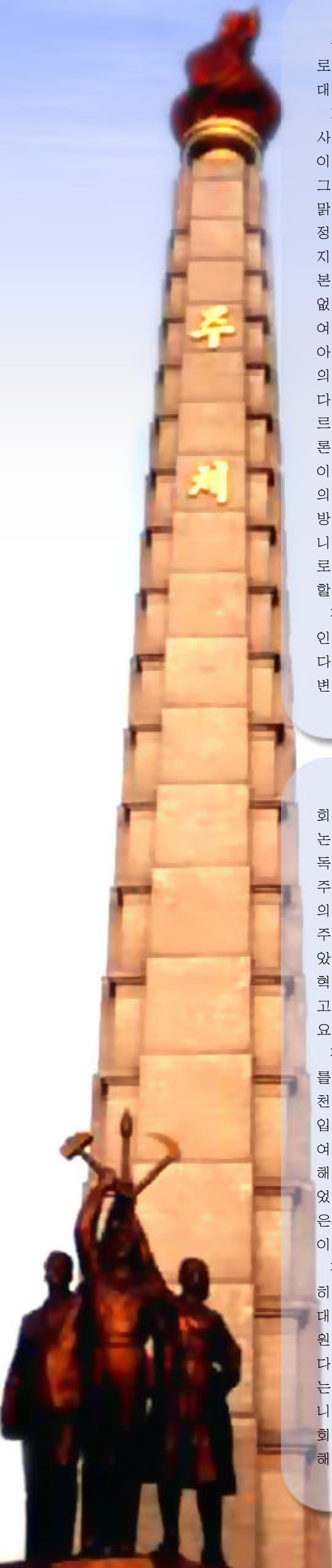
12 아리랑뉴스
- ≪아리랑≫ 관람객 모집 현황
- 그레그 전 주한 미대사 일문일답
- 한총련 합법화 위한 공청회
- 시민단체, 일 교과서 검정철회 촉구
- 민주노총 ≪비상대책위≫로 새출발한다
- 노점상은 축구공이 아니다

15 운동강좌
- 부시를 곤경에 빠뜨리는 한민족의 반제자주역량(4)

16 조국통일3대현장
- 통일운동의 대하 (4)

김일성주의의 독창성을 옳게 인식할 데 대하여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노작 - 당 이론 선전일군들과 한 담화 / 주체65(1976)년 10월 2일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우리가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고 그 정의를 내린 다음 그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졌습니다.

지금 누구나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부르며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체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우리시대의 맑스-레닌주의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 정식화에도 일리가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계승성을 기본으로 한 것이므로 옳은 정의로는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맑스-레닌주의에 맞추어 해석하는 편향이 남아 있습니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부르는 것은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상과 이론이 독창적이기 때문입니다.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체계라고 한 **김일성**주의의 정의는 **김일성**주의가 내용에서 사상, 이론, 방법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일성**주의는 내용으로 보나 구성으로 보나 맑스-레닌주의의 틀 안에서 해석할 수 없는 독창적인 사상입니다.

김일성주의의 진수를 이루는 주체사상은 인류 사상사에서 새롭게 발견된 사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체사상을 맑스주의 유물변증법에 맞추어 해석하려는 편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편지에서 제기된 의견을 보아도 주체사상을 ≪주체의 유물론≫, ≪주체의 변증법≫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주체사상의 독창성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맑스주의 유물변증법은 물질과 의식, 존재와 사유의 관계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물질의 일차성, 존재의 일차성을 논증한 데 기초하여 객관세계의 운동법칙을 밝혔습니다. 주체사상은 세계의 물질성과 그 일반적 운동법칙이 해명된 조건에서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논증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사람에 의한 세계의 지배와 그 개조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혔습니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단순히 세계의 한 부분으로서가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를 유물변증법의 틀 안에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체사상을 선행이론의 체계와 내용에 맞추어 해석하는 편향은 사회역사관에서 더욱 우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철학 교과서들을 보아도 주체사상이 밝힌 사회역사원리를 유물사관에 맞추어 해석하는 편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물사관은 물질세계의 일반적 법칙을 사회역사에 적용한 것입니다. 물론 사회도 물질세계에 속하는 것만큼 물질세계의 일반적 법칙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회에는 자연과는 다른 자기의 고유한 운동법칙이 있습니다. 자연의 운동에는 주체가 없지만 사회역사적 운동에는 주체가 있으며 사회역사적 운동은 주체의 작용과 역할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주체사상은 바로 주체의 운동으로서의 사회역사적 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밝혔습니다. 주체사상이 밝힌 사회역사관은 사회역사적 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체의 사회역사관을 유물사관에 맞추어 해석하여서는 안됩니다.

주체사상은 새로운 철학적 원리와 사회역사적 원리를 밝혀 주고 있을 뿐 아니라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 원칙들도 밝혀주고 있는 사상입니다.

주체사상과 함께 **김일성**주의 혁명이론도 독창적인 이론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김일성**주의 혁명이론을 맑스-레닌주의 혁명이론과 뒤섞어 놓는 편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계급의 혁명이론 발전의 견지에서 볼 때 맑스-레닌주의는 **김일성**주의에 선행한 역사적 시대의 혁명이론입니다. 맑스는 유물변증법에 기초하여 자본주의의 멸망과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의 필연성을 과학적으로 논증하였으며 레닌은 맑스의 학설을 이어 독점자본주의를 분석한 데 기초하여 자본주의의 불균등적 발전법칙과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승리의 가능성을 밝히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기 위한 혁명이론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이론은 자본주의, 제국주의를 전복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기 위한 이론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일성주의 혁명이론은 맑스-레닌주의를 낳은 시대와 다른 새로운 시대의 혁명실천이 제기한 문제들에 해답을 준 혁명이론입니다.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우리시대의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이론과 전략전술을 심오히 밝히시였습니다. 그러므로 **김일성**주의 혁명이론은 주체시대의 완성된 공산주의 혁명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일성주의가 밝힌 새로운 혁명이론 특히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에 관한 이론에 대하여 맑스-레닌주의 이론에서 그 어떤 원천을 찾아 해석하려고 하여서는 안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에 관한 문제는 **김일성**주의에 의하여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물론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도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와 관련한 일련의 견해들을 내놓았지만 그것은 예측과 가정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이미 오래 전에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이 내놓은 명제들 가운데서 참작할 만한 것은 다 참작하였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다음에는 우리 당이 독자적으로 사고하여 모든 문제들을 풀어 왔다고 하시였습니다. 사실상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다음 혁명과 건설의 이론실천적 문제들은 전적으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이론활동에 의하여 해명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맑스-레닌주의 고전에서 근거를 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일성주의는 또한 노동계급의 혁명이론에서 영도방법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전면적으로 해명하였습니다.

영도방법 문제는 노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이론실천적으로 독자적인 의의를 가지는 분야입니다.

노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은 세계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심각하고 복잡한 투쟁이며 광범한 대중이 참가하는 거창한 투쟁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올바른 지도사상, 지도이론과 함께 옳은 영도방법이 보장되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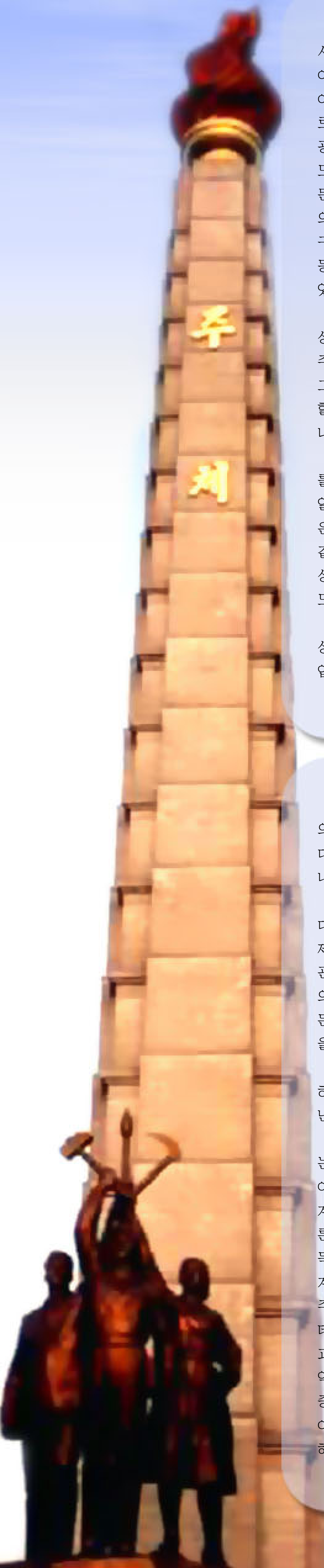
영도방법문제는 노동계급의 당이 정권을 잡고 새 사회를 운영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영도하게 노동계급의 혁명이론은 영도방법문제를 독자적인 이론으로 체계화하여 내놓지 못하였습니다. 영도방법에 관한 이론을 새롭게 천명하고 독자적인 구성부분으로 체계화한 것은 **김일성**주의의 중요한 공적입니다. **김일성**주의는 영도방법문제를 혁명의 승리를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로 제기하고 전면적으로 해명하였으며 특히 집권당의 영도방법,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영도하는 방법을 새롭게 천명하고 완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김일성**주의의 독자적인 구성부분을 이루는 영도방법에 대하여 그것을 방법론 문제로 그릇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일성**주의 영도이론의 내용과 그 독창성에 대하여 옳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김일성**주의는 구성체계와 내용에서 맑스-레닌주의와 구별됩니다.

아는 바와 같이 맑스주의는 독일의 고전철학, 영국의 고전정치경제학, 프랑스의 공상적 사회주의학설을 세 가지 원천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구성 체계도 이러한 세 분야를 포괄하였습니다. 레닌주의도 맑스주의를 여러 면에서 발전시키고 풍부히 하였으나 철학, 정치경제학, 과학적 사회주의의 3대구성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인민대중이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인류역사의 새

우리는 맑스-레닌주의를 정당하게 평가하는 기초 위에서 김일성주의와 맑스-레닌주의의 관계를 옳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주의와 맑스-레닌주의와의 관계는 계승성을 무시하고 독창성만 보려고 하여도 안되며 독창성을 소홀히 하고 계승성을 지나치게 내세워도 안됩니다.
물론 계승성과 독창성, 여기에서 주되는 것은 독창성입니다.
독창성을 기본으로 하면서 계승성을 결합시켜 보는 것, 이것이 김일성주의와 맑스-레닌주의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서 지켜야 할 원칙적 입장입니다.



시대, 노동계급의 혁명운동이 멀리 전진하여 전세계적 범위에서 폭넓고 깊이 있게 벌어지는 우리시대의 혁명 실천은 혁명의 새로운 지도사상과 지도이론을 요구하였으며 광범한 대중을 혁명에로 조직동원하는 영도문제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절실한 문제로 제기하였습니다.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이론과 영도방법을 3대 구성으로 하고 있는 **김일성**주의는 혁명운동발전의 이러한 새로운 요구에 해답을 주었습니다.

김일성주의는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사상이론체계입니다. **김일성**주의의 독창성은 주체사상의 독창성에 의하여 규정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김일성**주의에 대하여 말할 때 먼저 주체사상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주체사상과 **김일성**주의를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주체사상과 **김일성**주의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둘은 내용에서 같은 것이 아닙니다. **김일성**주의는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하여 전개된 혁명이론과 영도방법을 폭넓게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김일성**주의를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체계로 정식화하였던 것입니다.

김일성주의가 맑스-레닌주의와 구별되는 독창적인 혁명사상이라는 것은 결코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계승성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김일성**주의의 독창성을 강조한다고 하여 맑스-레닌주의와 대치시키는 편향도 있는데 **김일성**주의의 독창성은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계승성을 부인하고 그에 대치시켜야만 논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일성주의와 맑스-레닌주의는 다 같이 노동계급의 혁명실천에 해답을 준 혁명사상입니다.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여러 역사적 시대에 걸쳐 수행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며 여기에서 새로운 역사적 시대의 혁명투쟁은 선행시대의 혁명투쟁의 계속으로 됩니다. 노동계급의 혁명투쟁과 마찬가지로 그 요구를 반영하여 창시되는 노동계급의 혁명사상과 이론도 시대와 시대를 이어 계승되고 발전되어 나갑니다. **김일성**주의는 맑스-레닌주의와 다른 역사적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이지만 노동계급의 혁명 위업에 복무하는 그 계급적 이념과 사명의 공통성으로 하여 맑스-레닌주의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성**주의는 맑스-레닌주의가 이룩하여 놓은 사상이론적 업적을 옹호하고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창시되고 발전하였습니다. 주체사상 자체가 맑스-레닌주의 기치 밑에 혁명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된 사상이며 관념론과 형이상학의 온갖 조류들을 반대하고 유물론적이며 변증법적인 입장을 철저히 고수하여 온 사상입니다. **김일성**주의 혁명이론도 역시 부르조아이론과 기회주의이론으로부터 맑스-레닌주의 이론의 혁명적 진수를 옹호하고 그것을 우리시대의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창시되고 발전 풍부화된 이론입니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의 역사적 제한성을 보지 않고 통째로 삼키려는 교조적인 태도와 그 제한성만 강조하면서 그것을 부정하려는 허무적인 태도를 다 같이 반대하여야 합니다.

맑스-레닌주의 이론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창시된 당시의 시대적 조건과의 연관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역사적 견지에서 볼 때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준비기와 수행기를 반영하여 나온 맑스주의와 레닌주의는 자본주의의 전복을 위한 혁명투쟁의 이론과 전략전술을 밝히는 것을 직접적인 과제로 내세우고 그것을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은 자신들이 활동하였고 당시 혁명이 일정에 올랐던 자본주의나라, 주로는 구라파 자본주의 나라들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해당한 이론적 결론을 내렸습니다.

맑스-레닌주의의 제한성은 이처럼 그 시대적 조건과 자기 앞에 내세웠던 역사적 과제 그리고 출발점으로 삼은 역사적 전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맑스-레닌주의의 명제와 이론이 오늘의 혁명실천의 모든 요구에 해답을 주지 못한다고 하여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를 정당하게 평가하는 기초 위에서 **김일성**주의와 맑스-레닌주의의 관계를 옳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주의와 맑스-레닌주의와의 관계는 계승성을 무시하고 독창성만 보려고 하여도 안되며 반대로 독창성을 소홀히 하고 계승성을 지나치게 내세워도 안됩니다. 물론 계승성과 독창성, 여기에서 주되는 것은 독창성입니다. 독창성을 기본으로 하면서 계승성을 결합시켜 보는 것, 이것이 **김일성**주의와 맑스-레닌주의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서 지켜야 할 원칙적 입장입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김일성**주의의 독창성과 그 역사적 의의를 옳게 인식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앞으로 기회를 보아 이 문제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주려고 합니다. (끝)

정치사전

주 체

주체사상의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내용에 대한 집약적표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 져 있는 주체라는 말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을 표현하는 술어입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권, 65페지)

주체사상은 사람위주의 철학적원리와 사회력사원리, 지도적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체사상의 이 심오하고 폭 넓고 풍부한 내용들은 본질상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것을 확증하여 준다.

이 위대한 주체사상을 한마디로 집약적으로 표현하여 주체라고 부른다.

이와 함께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들도 주체라는 술어를 붙여서 흔히 표현한다.

다음으로 물질운동의 담당자중에서 주동적이며 의식적인 작용과 역할을 하는 담당자를 주체라고 한다.

현실세계의 모든 존재중에서 주체로 될수 있는것은 오직 사람뿐이다.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제기하고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해결해 나갈수 있으며 목적의식적으로 활동할수 있다. 현실세계의 모든 존재중에서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할수 있는것은 사람뿐이며 따라서 사람만이 인식의 주체, 개조의 담당자로 될수 있다.

사람이 주체라는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주체로 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람과 그밖의 물질적존재를 놓고 볼 때에는 사람이 주체로 되지만 사람만을 놓고 볼 때에는 근로인민대중만에 주체로 된다.

근로인민대중이 주체인것만큼 사회력사적운동은 주체의 운동으로 된다.

2권 제6장

시련의 해

1. 남만으로
2. 마지막모습
3. 기쁨과 슬픔
4. 합작은 불가능한가?
5. 단합의 리념아래
6. 구국군과 함께
7. 소사하의 가을
8. 라자구등판에서

1. 남만으로 (1)

유격대활동의 합법화가 실현되고 항일유격대가 정식 창건된 다음 우리 동무들 속에서는 그 활동의 첫 시작을 어떻게 떼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론의되였다.

성시에 가서 열병행진을 하고 소사하에 다시 돌아온 우리는 농촌집 웃방에 대원들을 3-4명씩 분숙시킨 다음 그들을 며칠동안 휴식시키면서 유격대의 행동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토의를 가졌다. 이 토의과정도 역시 카륜이나 명월구에서처럼 격렬한 론쟁을 동반하였다.

모여서 입씨름을 하는 광경을 보면 그야말로 개개명창이였다.

유격전에 대한개념도 각이하였거니와 그 전술에 대한 주장이나 해석도 십인십색이였다. 지식정도와 생활경로, 소속단체가 서로 다른 100여명의 청년들이 모인 집단인 것만큼 목소리도 여러가지일 수밖에 없었다.

그 목소리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 부류의 주장은 소조론이였다. 소조론이란 중대요, 대대요, 련대요, 사단이요 하는 판에 박힌 부대편성방법을 따르지 말고 간편하고 기동성이 높은 무장소조들을 많이 조직하여 끊임없는 소모전으로 적들을 타승하자는 주장이였다. 삼삼오오의 소조로 유격대력량을 세분하여 참모부의 유일작전에 따라 수십수백의 소조가 도처에서 활동하게 되면 능히 일본제국주의자들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였다.

이 론리의 제창자들은 무장소조를 기본단위로 하는 유격전이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새로운 형식을 하나 창조해내는 과정으로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돈화와 연길에서 온 청년들 가운데 특히 이 소조론을 주장하는 동무들이 많았다. 이 두 고장의 청년들은 리립삼의 좌경적인 모험주의로선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온 사람들이였다. 그 여독이 아직도 그들의 사고방식에 남아있었다.

차광수는 이 무장소조론에 대하여 현대판 프랑끼주의라고 혹독하게 비판하였다. 차광수의 견해에 대해서는 나도 동감이였다.

일제의 군사력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대부대에 의한 전면적인 무장대결은 피하고 몇사람씩 패를 지어 돌아다니면서 라석주나 강우규처럼 적의 우두머리들에게 폭탄도 던지고 통치기관들에 방화도 하고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에게 철추도 내리자는 것이 무장소조론의 본질이였다.

무장소조론은 유격전의 외피를 쓴 테로주의의 변종이였다.

이 주장대로만 한다면 우리는 사실상 대부대에 의한 유격전을 포기하는 것으로 된다. 이것은 투쟁방법에서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였다. 우리는 이런 후퇴를 묵인할 수 없었다.

반일인민유격대창건을 전후한 시기 일본과 중국에서는 우리 나라 애국자들에 의하여 두 가지 감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중 하나는 도꾜 궁성 앵전문밖에서 일본천황이 탄 쌍두마차를 향하여 폭발탄을 던지 리봉창 렬사가 단행한 폭탄투척사건이다. 리봉창은 폭탄의 불명중으로 천황을 처단하려던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윤봉길은 거사에 성공하여 상해주둔 일본사령관 시라가와대장과 무라이 상해총령사, 가와하시 거류민단장을 즉사시키고 주중공사, 제9사단장, 해군대장을 비롯하여 천황의 생일을 기념하려고 홍구공원에 모여온 여러명의 두목급군정요인들에게 중상을 입힘으로써 내외에 큰 파문을 던지였다.

리봉창이 천황행렬에 폭탄을 던지고 체포된 다음날은 1932년 1월 9일 중국 국민당기관지 ≪국민일보≫는 특호활자로 ≪한일 리봉창 저격 일본천황 불행부중≫이라는 글을 실었으며 그밖의 여러 신문들도 리봉창의 의거를 특종기사로 널리 소개하였다. 이 보도가 얼마나 큰 자극을 주었던지 현지의 일본 군대와 경찰은 ≪국민일보≫ 신문사를 습격하고 파괴하기까지 하였다. 불행(不幸)자를 쓴 신문사들은 모조리 폐쇄되었다.

윤봉길의 의거에 대해서도 조중인민들은 다같이 격찬하였다. 홍구공원사건이 있은 후 중국사회계의 명사들이 련이어 이 사건의 조직자이며 배후조종자인 김구에게 면회를 청하였다. 일본의 침략에 투항주의로 대처하고 있던 중국국민당 반동정부의 우두머리들까지도 조선민족의 투철한 저항정신과 영웅성에 감동되며 재중조선인들에 대한 경제협력을 약속하였다.

리봉창과 윤봉길은 다같이 김구의 부하들이였으며 김구가 주관한 한인 애국단의 성원들이였다. 한인 애국단의 기본 적인 항일투쟁방법은 테로였다.

리봉창, 윤봉길의 의거에 뒤이어 대련에서는 김구가 파견한 애국단원들이 관동군사령관 암살미수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들은 국제련맹 릿든조사단이 봉천으로부터 대련에 도착할 때 일본군정요원들이 역으로 나오는 기회를 타서 관동군사령과과 만철총재, 신임 와사부장을 암살하려고 하였다. 김구는 부하들을 파견하여 조선총독까지 처단하려고 하였다.

이등박문을 격살한 안중근이 민족적 영웅으로 찬양되고 리봉창, 윤봉길의 의거로 국내는 물론 미주, 연해주, 만주 등지에 산재한 온 교포사회가 법석 끓고 있던 시대적 분위기를 타고 테로주의는 적개심에 불타는 조선의 많은 청년들을 현혹시켰다. 이런 시기에 무장소조론과 같은 주장이 대두하여 반일인민유격대의 활동방향을 결정하는 론의에까지 상정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무장소조론의 제창자들은 조선과 일본, 중국각지에서 윤봉길의 거사와 같은 의거가 련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일제통치의 아성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력설하였다.

다른 하나의 부류는 전면적인 무장공격에로 당장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이였다. 김일룡과 같은 사람들이 무장소조론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면 박훈, 김철(김철회)과 같은 사람들은 즉시적인 무장대결론에 미련을 갖고 있었다. 대도시에서 수천수만명의 정규군과 폭동군중이 와와 소리를 지르며 밀려다니는 광경만을 보아온 박훈이 무장소조론을 시답지않게 대하면서 전면적인 무장공격을 즉시에 개시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은 어느 정도 리해할 수 있는 일이였지만 남의 집에서 데릴사위로 있던 김철이 그 고분고분한 성미에 어울리지 않게 처음부터 판을 크게 벌려야 한다고 열변을 토할 때에는 참으로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면적 무장공격에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다 일정한 론거는 가지고 있었다. 일본은 9.18사변으로 만주강점의 목적을 손쉽게 달성하려고 상해를 비롯한 관내의 여러 요충지들을 점령하였다, 동3성에는 ≪만주국≫이라는 괴뢰국가가 새로 태어나 깃발을 걸었다, 다음 목표는 어디인가? 중국본토와 쏘련이다. 지금 일본군대가 정세의 추이를 관망하면서 공격속도를 늦추고 있지만 무슨 트집을 또 하나 잡아서 중국을 들이치고 쏘련을 공격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때문에 현재 조직된 무장부대들로 전면적인 군사작전을 개시하는 것은 전쟁의 수렁창에 깊이 끌려들어가고 있는 일제의 뒤통수를 후려갈기는 것으로 될 것이다, 우리 유격대가 적극적 공격자세를 취하는 것은 력사가 부르는 명령이다, 이것이 그들의 론거였다.

김일룡은 이 급진적인 주장에 대하여 ≪이불깃을 보고 발을 펴라≫는 속담으로 간단히 무시해버렸다. 사실 그것은 반일인민유격대의 준비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모하고 주관적인 견해였다.

물론 우리가 카륜에서 제기한 무장투쟁로선은 일제와의 전면적 무장대결을 예견한 것이였다. 항일무장투쟁의 기본양상이 조직적이고 전면적인 무장대결로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었다. 그러나 첫 걸음은 뗀데 불과한 유격대가 아무런 자체준비도 없이 처음부터 그런 길을 걷는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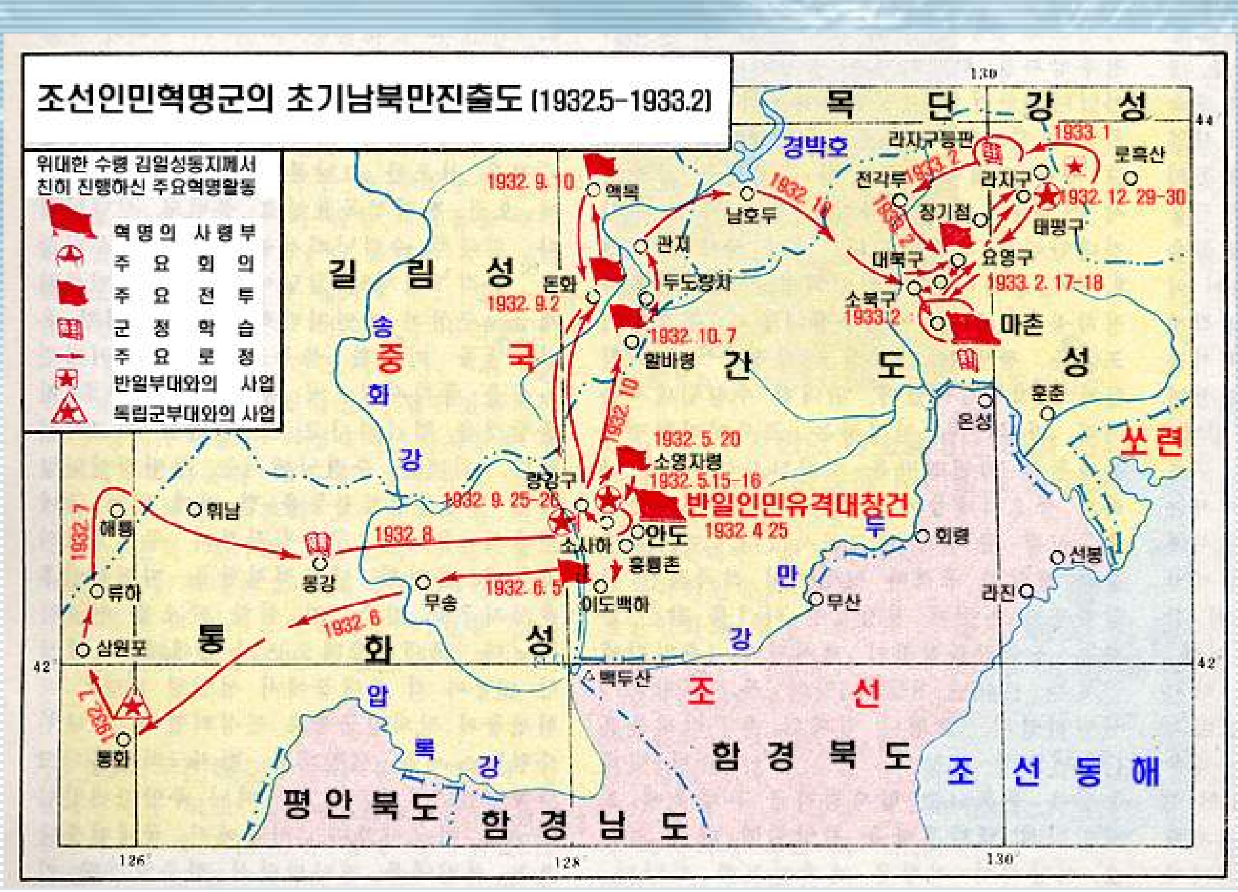
이외에 다른 부류의 견해가 또 하나 있었다. 그것은 적을 알고 자기도 알면 백전백승이요, 적도 자기도 다 모르면 백전백패한다는 리치를 내대는 신중론이였다.

신중론의 제창자들은 말하였다. 우리의 적은 강적이다, 우리는 어떠한가, 수에 있어서나 질이 있어서나 갓 태어난 어린 싹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막강해지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지만 지금은 은밀히 활동하면서 량적으로나 질적으로 힘을 꾸준히 키워야 한다. 우리의 투쟁이 장기성을 띠는 만큼 끈기있게 력량을 축적했다가 적이 약해지는 기회를 노려 일격에 쳐서 꺼꾸러뜨려야 한다고.

이 견해는 매우 미온 적이고 시간을 가늠할 수 없는 막연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우리는 이런 론의를 소사하에서 처음 한 것이 아니였다. 고유수에서 혁명군을 조직할 때에도 그와 류사한 론의를 한 적이 있었고 카륜에서 무장투쟁로선을 확정하고 명월구회의 조직적인 유격전쟁을 전개할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할 때에도 그와 비슷한 론의를 한 적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미전부터 우리와 조직생활을 같이해온 동무들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의도를 원만히 파악할 수 없었다.

대오안에서 중요한 로선상 문제를 놓고 이처럼 각이한 목소리가 울려나온 것은 반일인민유격대의 청소한 면모를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실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부대는 직업과 지식정도, 출신지역과 출신조직이 각이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동아일보≫, ≪조선



일보≫와 같은 출판물들과 중학강의록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받아보면서 꾸준히 눈을 틔워온 청년들이 있는가하면 장광자의 ≪소년방랑자≫나 최서해의 ≪탈출기≫와 같은 소설작품들을 읽고 사회개조의 푸른 꿈을 키워오다가 유격대에 입대한 청년들도 있었으며 학교물은 조금도 먹어보지 못했지만 적위대나 소년선봉대와 같은 혁명조직들에서 몇해동안 정치적 수련을 쌓아오다가 총을 한자루씩 얻어가지고 무장대오에 들어온 청년들도 있었다. 그러므로 사물현상을 리해하는데서 자연히 수준상 층하가 생기기 마련이었다.

이런 실태는 우리로 하여금 부대내에서 사상의 유일성, 행동의 일치성, 관습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첫 공정으로 유격대의 전술적 원칙과 중요한 로선상 문제에 대한 리해에서 일치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과 이 공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갓 태어난 반일인민유격대가 첫 걸음에서부터 조난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나는 차광수와 함께 마을을 돌아다니며 우리의 전술적 의도를 잘 리해하지 못하는 동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무장소조론은 안중근의 전철을 밟겠다는 사상이다. 테로로써 일제를 굴복시키겠다는 것은 망상이다. 이등박문은 죽었지만 일본의 통치는 그대로 살아서 오히려 ≪만주국≫의 조작까지 보고 지금은 중국 본토에까지 촉수를 뻗치고 있지 않은가. 경우에 따라서 반일인민유격대가 소조활동을 할 때도 있겠지만 소조가 기본 적인 전투단위로 되어서는 안된다.≫≪전면적 무장공격으로 즉시에 이행하자는 주장도 비현실적이다. 100명 남짓한 부대를 가지고 수십수백만을 헤아리는 일본의 대군과 정면으로 맞붙어 싸우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100명의 돌격전으로 수십만대군을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경솔한 판단이겠는가. 동무들, 제발 적을 과소평가하지 말자.≫≪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당분간은 중대를 기본단위로하여 유격전을 벌이자. 소조단위로 활동해가지고서는 큰일을 치르지 못한다. 앞으로 부대가 커지면 더 큰 단위로 활동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중대단위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리상적이다. 처음부터 대부대를 모을 형편이 못된다는 것이야 동무들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항일전쟁은 몇 번의 전투로 끝나는 단기전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적은 력량으로 시작을 땐 다음 전쟁과정에 무력을 끊임없이 축적하고 확대하였다가 때가 되면 전인민적 무장봉기와 배합된 결전으로써 최후승리를 달성해야 한다. 우리는 경편한 무장을 갖추고 령활하게 기동하면서 집중된 적을 분산시키고 분산된 적은 각개격파하며 큰 적은 피하고 작은 적은 먹어치우는 방법으로 시종일관 대방에 대한 전략전술적 우세를 보장하며 부단한 소모전으로 일제를 타승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유격전이며 여기에 바로 유격전의 묘미가 있다. 싸움은 하지 않고 력량만 살금살금 축적하면서 때를 기다렸다가 일격에 적을 때려부시자고 주장하는 신중론자 동무들, 투쟁과 희생이 없이 그리고 류혈이 없이 때가 저절로 온다고 생각하는가. 그 누구도 우리에게 독립할 기회를 선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기회는 우리가 투쟁으로써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나는 이런 말로써 대원들에게 우리의 의도를 납득시키었다.

물론 모든 대원들이 즉석에서 내 말을 다 리해한 것은 아니었다. 개중에는 자기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완강하게 고집하는 청년들도 있었다.

나는 실천투쟁만이 십인십색으로 벌어지는 우리의 론쟁에 아퀴를 짓고 진리가 어느쪽에 있는가를 판정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유격대의 활동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에 시간을 아낌없이 바치었다.

항일전쟁의 길에 나선 우리 부대앞에는 그 당시 아래와 같은 과업들이 제기되고 있었다. 첫째로, 반일인민유격대를 실천투쟁속에서 단련시켜야 하였다. 둘째로, 부대를 질량적으로 급속히 확대강화해야 하였다. 셋째로, 혁명군대가 의거할 대중적 지반을 튼튼히 축성하고 유격대의 주위에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워야 하였다.

우리는 이상의 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를 남만원정에서 찾고 그것을 1932년 한해동안의 주되는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우리가 안도에서 조직한 무장부대는 다른 현이나 구에서 조직한 무장부대들과는 다른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현의 유격대가 해당 현의 유격대가 해당 현의 출신들로 조직되었다면 안도유격대는 동만, 남만의 여러 현에서 선발된 전위분자들과 국내에서 들어온 선각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른 지방의 유격대가 자기 지방에 정착하여 활동한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면 우리 부대는 판도를 한 두 고장에 국한시키지 않고 백두산지구와 압록강, 두만강 연안의 전반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안도는 지역적으로 볼 때 유격전에 매우 유리한 고장이었지만 우리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방금 껍질을 터치고 태어난 우리 유격대는 광활한 대지에 나가 비바람을 맞으면서 줄기와 가지를 자래우고 인민들속에 뿌리를 내려야 하였다. 성급하게 투쟁일면에만 치우치는 것도 경계해야 할 일이지만 자기 보존만을 생각하면서 한자리에 앉아 어물어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용납할 수 없었다.

우리가 반일인민유격대의 첫 출발을 원정으로 선택한 하나의 중요한 리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

남만원정의 주되는 당면목적은 압록강연안에서 활동에서 독립군부대들과의 련계를 맺는 것이었다. 남만의 통화지방에는 량세봉사령이 지휘하는 독립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들과 공동전선을 맺으려고 하였다.

량세봉의 관할하에 있는 독립군력량이 수백명이나 되었다. 그 부대를 조선혁명군이라고도 하였다.

안도에서 반일인민유격대가 창건되던 당시는 량세봉이 당취오의 자위군과 합작하여 일본군과 만주국군을 성과적으로 타승하고 있던 시기였다. 그 전과보도가 소사하골짜기에까지 날아와 우리를 기쁘게 해주었다.

박훈은 량세봉이 반공이 골수에까지 사무친 국민부계통의 민족주의자인데 공산주의자들과 합작을 달가와하겠는가하고 머리를 기웃거렸지만 나는 중국의 구국군과도 공동전선을 맺었는데 반일이라는 공동의 경륜을 두고 한 핏줄을 가진 사람들끼리야 손을 잡지 못할 리유가 무엇인가고 하면서 독립군부대와의 통일전선을 어떻게 하나 성사시켜야 한다고 말하였다.

내가 량세봉과의 합작이 성공할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은 그가 우리 아버지와 깊은 친교관계를 맺어온 사람으로서 나를 몹시 사랑해주었다는 지난날의 정의와 인맥관계를 중시한데도 있었다. 김시우와 량세봉이 화전에서 우리 아버지와 의형제를 맺고 사진까지 찍었다는 말을 나는 벌써 어린 시절에 들었다. 량사령과 우리 아버지 사이의 친분이 이만저만 두텁지 않았다.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그가 나를 위해 화성의숙에 보내는 소개서신도 써주지 않았을 것이며 길림에 나타날 때마다 육문중학교에 찾아와 내 손에 돈도 쥐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학비난 때문에 남들이 사먹는 호떡조차 입에 넣어보지 못하고 푼전을 아껴가던 그 시절에 그가 준 돈을 얼마나 요긴하게 썼는지 모른다.

왕청문 사건이 있은 후 국민부일반에 대한 환멸로 하여 량세봉과의 관계도 자연히 소원해졌지만 나는 그에 대한 고마운 정을 마음속에서 조금도 지우지 않고 있었다. 유격대를 창건해놓고도 그 출로를 찾지 못해 안타깝게 모대길 때 량세봉을 찾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맨 처름으로 떠오른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통일전선도 통일전선이지만 여러해동안의 실전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서 필요한 조언도 듣고 고무도 받고 싶은 욕망이 그만 못지 않게 간절하였다.

총알맛을 한번도 보지 못하고 출정의 기쁨에 들떠있던 우리들에 비하면 량세봉사령은 백전로장이라고 할 수 있었다. 우리가 민족주의자들앞에서 독립군의 방식대로 싸우지 않겠다는 결의를 여러차례 표명하였지만 그것은 인민의 힘에 의거하지 않는 나쁜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이지 그들의 군사경험이나 기술까지도 무시해버리겠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왕청문에서 국민부에 의한 백색테로를 체험할 때 다시는 독립군령감들과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피눈물을 머금고 결심하였지만 민족해방의 공동성업이라는 결륜을 앞에 두고 우리는 과거의 허물을 들추지 않기로 하였다. 과거를 계산하게 되면 합작을 이룩할 수 없었다.

(내일 계속)

일화

현실로 된 꿈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평생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인민의 행복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인민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쉬임없이 인민을 찾으시고 인민들의 생활을 각근히 보살펴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의 갈피마다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수없이 전해 져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 주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인민에 대한 사랑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신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시였다.≫

어느 해 겨울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저택으로 여러명의 농민들이 찾아 왔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짜주신 일정표대로 평양견학을 마친 원화리농장원들이였다.

그들이 친부모를 찾는 자식된 도리로 어버이수령님의 저택을 찾게 된데는 깊은 사연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원화리를 찾으시였을 때 가마니를 짜고 있던 농장원들은 앞을 다투어 달려 가 수령님께 인사를 올리였다. 농장원들은 어버이수령님께 평양견학을 했으면 하는 자기들의 심정을 무랍없이 말씀 드리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럼 평양견학을 해야지 하시며 손수 연필을 꺼내드시고 친히 평양견학일정표를 짜주시였다.

조선혁명박물관, 당시의 공업 및 농업전람관, 평양방직공장, 평양곡산공장… 견학대상들까지 하나하나 잡아 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견학날자도 정해 주시였다.

마을사람들은 환성을 올리며 기뻐 어쩔줄 몰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짜주신 견학일정표대로, 친히 보내주신 뻐스를 타고 평양견학을 한 농민들의 기쁨과 감격은 한량 없었다.

평양견학을 마친 그들이 어버이수령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려고 수령님의 저택을 찾아 간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였다.

그런데 저택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지 않으시였다.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신 어버이수령님의 안녕을 삼가 축원하며 농민들은 발길을 돌리였다. 하지만 섭섭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그들의 서운한 심정은 돌아 온후 더욱 커졌다. 그들은 좀처럼 잠을 이룰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이였다.

여느 날보다 일찍 포전에 나온 농장원들은 저마다 희한한 꿈이야기를 하였다. 어제밤 꿈속에서 글쎄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왔다는것이였다. 신통히도 꼭같은 꿈을 꾸었던것이였다.

그런데 그 꿈이 정말 현실로 될줄이야.

어버이수령님께서 원화리에 또다시 오시였다는 소식에 접한 농민들을 꿈인지 생시인지 한동안 어안이 벙벙하여 서 있었다.

농장원들은 크나큰 기쁨에 넘쳐 어버이수령님께로 한달음에 달려 갔다.

농민들의 인사를 반갑게 받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평양견학을 잘했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그러시면서 ≪동무들이 찾아 왔을 때 내가 있어야 했을것인데 안됐습니다, 그때 내가 지방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보려고 왔습니다≫라고 하시며 농장원들을 둘러 보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덕을 받아 안은 원화리사람들은 격정을 금치 못해하며 그이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수령과 농민들사이에 흐른 이런 친혈육의 정보다도 더 뜨거운 사랑과 믿음, 보답과 의리의 관계를 이 세상 그 어디에서 또 찾아 볼수 있으랴.

소박한 농민들의 꿈이 현실로 된 이야기를 오늘도 이곳 사람들은 후손들에게 전설처럼 전해가고 있다.

송가

4월명절 날짜풀이 노래

일 – 일천구백 십이년 사월 십오일

천 – 천하절승 만경대에 태양이 솟아

구 – 구만리 창공에 빛을 뿌렸소

백 – 백화가 만발하는 이날이 있어

십 – 십삼도에 광복의 햇살 비끼고

이 – 이북엔 ≪이민위천≫ 새 세상 꽃폈소

년 – 연중에서 제일로 경사로운 날

사 – 사람마다 친어버이 생신날인듯

월 – 월력에 표시하고 기다린다오

십 – 십년세월 천만번 흘러간대도

오 – 오매불망 김주석님 탄생하신 날

일 – 일구월심 기리는 태양절일세

흠모

20세기가 낳은 가장 걸출한 위인

≪**김일성**주석의 한생은 자유와 사회주의를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거대한 역사적 공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의 한생이였다.

김일성주석은 20세기가 낳은 가장 혁명적이며 걸출한 수령들 중의 한분이시였다.

그분의 존함은 그분께서 자유와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쌓아 올리신 빛나는 업적과 더불어 현세대 뿐아니라 조선의 새 세대들과 세계인민들의 경모의 마음 속에 영생할 것이다.

우리는 탁월한 영재이시며 위인이신 **김일성**주석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한다.≫(아일랜드노동당 위원장 톰 프렌취)

≪**김일성**주석은 20세기가 낳은 위인으로서 영생하고 계신다.

김일성주석은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가 말한 바와 같이 **김일성**주석은 죠지 워싱턴과 토마스 제퍼슨,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다.≫(페루노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위원장 헤나로 레데스마 이스키에타)

≪위대한 수령님께서 뜻밖에 서거하신 때로부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구상의 모든 진보적 사람들은 천재적이며 위대하신 **김일성**동지를 더욱 그리워 하고 있다.

진정 인민의 수령이신 **김일성**동지는 뛰어난 사색가, 이론가, 유일무이한 정치가, 외교의 대가, 당과 국가의 선견지명하신 저명한 영도자,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시었다.≫(공산당연맹-소련공산당 이사회 위원장 올레그 쉐닌)

≪20세기는 **김일성**동지께서 세계역사에 잊을 수 없는 기여를 하신 세기로 기록되고 있다.

김일성동지의 태양의 존함은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인류는 그분께 커다란 경의를 드리고 있다.≫(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미로슬라브 슈체판)

≪**김일성**동지께서는 20세기의 위대한 사상가, 정치가 그리고 혁명가로서 자주성을 위한 민족과 인류자주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었다.

김일성동지는 20세기와 함께 21세기에도 영원히 빛을 뿌리는 인류의 태양이시다.≫(훌륭한 녹색가이아나당 지도자 해밀톤 그린)

꿈같은 현실

≪당국이 하던 말과는 너무너무 차이났습니다. 우리는 그간 눈먼 소경처럼 속아왔습니다. 직접 만나보고 이 눈으로 보니 이북이야말로 살 멋이 참세상, 꿈같은 세상이였습니다.≫ 2000년 11월 평양에 가서 형님을 만나보고 온 김모씨의 말이였습니다.

김모씨의 글 ≪꿈같은 현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철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희망을 안고 산다. 그 희망이 하루빨리 성취되기를 고대하는 꿈도 꾸어보며 그날에 대한 설계로 가슴 부푸는 이들도 적지 않다.

나 역시 희망을 품은 채 오랜 세월을 보내왔다. 나의 소망은 분단된 조국의 통일과 분단으로 갈라진 혈육, 나의 형을 한번만이라도 만나보는 것이였다.

한 핏줄을 나눈 형제간의 상봉을 이루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도 우리 겨레는 그 단순한 만남이 어찌하여 그리도 어려웠던 것일까.

이별의 고통속에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만이 덮싸이는 가운데 흘러온 50여년, 실로 긴긴 세월이었다.

그런데 암흑으로 뒤덮였던 분단의 장벽이 갈라지고 이 땅에도 밝은 서광이 비쳐들었다.

2000년 6월이었다.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의 발표, 그 광휘속에 꿈으로만 찾고 부르며 희망으로만 그려보던 그 상봉, 그 만남이 드디어 성취된 것이었다.

예로부터 복은 쌍으로 안온다고 했지만 통일의 밝은 서광이 비쳐드는 삼천리강토에는 복과 기쁨이 쌍으로 겹으로 왔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형님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날아들더니 내가 형님을 만나러 평양에까지 가게 될줄이야. 이게 꿈이 아닌지… 아니었다. 그것은 그대로 현실이었다.

나는 형님과 10살 때 헤어졌다. 형님이 1950년 의용군에 입대하던 날 어머니는 떡을 했었다.

그날 형님은 짧아서 석달, 길어서 반년이면 다시 돌아오겠는데 그때 미국놈들을 다 쳐부수고 통일노래 부르며 돌아오겠다고, 그때 어머니가 해주는 떡을 또 먹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나에게 어머니말 잘 들으라고 당부를 남긴 채 웃으며 떠나갔다.

나는 그 웃음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

그 형님을 5년이 아니라 장장 50년만에 만나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흘러간 그 세월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전쟁후 의용군가족이라고 경찰들이 온갖 못된 짓과 행패질을 다할 때에도 형님의 말대로 미국놈 망할 날 꼭 온다고 외우시던 아버지. 그리고 반공광신자들이 남에서 간 의용군들이 북에서 학대받고 있다느니 생활이 곤란해 다 죽었다느니 하고 떠들어댈 때도 전쟁 때 인민군대가 주고 간 **김일성**장군님 초상사진을 꺼내보고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불러보며 통일세상이 꼭 올거라고 마음을 굳게 먹으시던 어머니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그토록 믿고 믿는 신념이 있었기에 나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드디어 뜻깊은 만남을 이룰 수 있은 것이 아니겠는가.

2000년 11월 나는 형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 눈을 의심했다. 가슴 양쪽을 가득 채운 눈부신 훈장, **김정일**장군님께서 하사해주셨다는 시계며 표창장들.

≪형님, 형님은 정말 북에서 대성하셨군요. 형님은 워낙 이악하셨죠.≫

≪그래, 나는 북에 와서 큰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그건 나의 노력이나 선천적 기질때문만이 절대 아니다. 옛날부터 훌륭한 자식의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다고 하지 않았니. 내가 이처럼 북의 큰 간부로 성장할 수 있은 것은 내가 안긴 품이 따사롭고 나를 이토록 내세워주신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셨기 때문이다.≫

형님이 나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다. 18살 나이에 의용군으로 북에 간 형님은 그야말로 혈혈단신이었다. 그러나 북에서는 형님을 한 형제로 따뜻이 대해주었다. 먹여주고 입혀주었으며 남에서 배우지 못했다고 대학공부까지 시켜주었고 졸업후에는 이북의 큰 간부로 기용해주었다. 그리고 형님이 하는 일을 높이 평가해주며 온갖 은정과 배려를 다 돌려주었다. 들으면 들을수록 감동적이었고 새기면 새길수록 희한했다.

≪내 인생이 이렇듯 값높은 절정에로 오를 수 있은 것은 다 민중을 위한 세상인 공화국의 덕분이다.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이 아니셨다면 내가 어떻게 국가정사를 다루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대기업소의 지배인, 노력영웅으로까지 될 수 있었겠니. 이것은 결코 나 하나만의 생활담, 행복담이 아니다. 남에서 온 모든 사람들, 아니 이북민 모두가 하나같이 누리고 있는 행복상이다. 이제 통일이 되면 7천만 우리 겨레 모두가 바로 이런 행복을 누리게 될꺼야.≫

형님의 이 말을 눈물속에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이북 사람들 모두가 우리 형님과 같은 생각을 품고 살고 있구나. 미국의 대북고립압살책동으로 비록 생활은 넉넉치 못하고 물질적 풍요는 누리지 못해도 우리 이남 사람들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정신적 풍요를 누리며 진짜 부자로 살고 있구나.≫

나는 형님의 밝은 모습, 희망과 자신감 넘친 목소리에서 인간의 참된 행복, 민족의 참다운 미래가 바로 북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래서 나는 형님을 만난 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김정일**장군님께 올리는 편지를 정성스레 썼다. 형님을 그토록 훌륭한 사람으로 되게 해주신 한없는 고마움을 담아 7천만 겨레 모두가 **김정일**장군님의 품에 안겨 만복을 누릴 통일의 날을 어서 빨리 앞당겨 올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나는 그날의 편지를 마음속 깊이 새겨보며 살고 있다. 꿈같은 현실이 펼쳐진 저 북녘하늘을 우러르며 형님을 다시 만날 통일의 그날을 그려보고 있다.

김모씨가 체험한 것이 이북의 혈육을 만난 모든 분들의 한결같은 느낌이었다고 하겠죠. 아무튼 이산가족상봉이 계속돼서 혈육의 정을 나누자고 해도 남북관계가 좋아지는 걸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는 미국의 반통일책동을 저지파탄시켜야 하겠죠.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7일~8일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4월 8일

김일성주석님 칭송인쇄물 발견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사교육의 1번지라 일컬어지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모학원 강의실에서 4월 5일 아침 **김일성**주석님 칭송인쇄물들이 발견됐습니다.

엽서크기의 인쇄물 앞면에는 ≪**김일성**주석님은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라는 글발아래 환히 웃으시는 주석님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 있습니다.

뒷면에는 ≪태양은 영원합니다≫라는 표제의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김일성**주석님은 희세의 위인적 풍모로 민족과 시대를 이끄신 영원한 태양이시옵니다. 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 민족운명의 수호자,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 **김일성**주석님은 **김정일**장군님 계시어 오늘도 우리 민족과 함께 계시옵니다.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솟아 우리 앞길 밝혀주고 계시옵니다. 위대한 태양절 만세!≫

그것을 본 강사와 수강생들은 태양절을 맞으며 더욱 높아가는 우리 민중의 주석 경모의 마음이 거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조국통일운동과제를 밝혀
범민련 남측본부

범민련 남측본부가 앞으로의 조국통일운동과제를 밝히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글은 내외의 기대속에 열리기로 돼있었던 2002년 새해맞이공동모임이 실현되지 못한데 언급하고 그 직접적 원인은 부시의 방한이후 조성된 정세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글은 민족자주통일운동세력이 올해 이 운동을 일관하게 추진시켜 나간다는 중장기적인 입장을 가지고 투쟁을 강인하게 밀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시작한 반미반전운동을 더욱 대중적으로 확대발전시켜야 한다면서 글은 특히 부시반대투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성과를 조국통일운동에로 승화시키려는 관점과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글은 또 확고한 주체적 입장을 가지고 조국통일운동을 적극화해야 한다면서 조국통일운동의 지향과 목표를 뚜렷이 세우고 일관하게 우리의 길을 가자고 호소했습니다.

글은 6.15공동선언에 동의하는 광범위한 단체들은 범국민적 통일기구에 망라되어 마땅히 끈기있게 연대와 단합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글은 조국통일의 주체는 7천만 겨레 전체이며 이 과정에 누구도 소외돼서는 안된다는 것은 조국통일운동의 대원칙이라고 주장하고 확고한 주체적 입장을 가지고 민족자주통일운동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자고 호소했습니다.

범청학련 남측본부관련 구속자 석방을 위한 결의대회

2002년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범청학련 남측본부 한총련 통일일군전진대회 참가자들이 지난 3월 30일 ≪범청학련 남측본부관련 구속자석방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결의문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을 통일하자는 전민족적인 의지가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해 감행된 범청학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은 바로 6.15공동선언을 전복시키고 우리 민족을 공멸에로 내몰려는 미국과 반통일세력들의 책동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고 규탄했습니다.

결의문은 지금에 와서도 보안법의 칼을 휘둘러 범청학련 남측본부를 탄압한 것은 어떻게 하나 민중들의 자주민주열망을 가로막으려는 저열한 정치공작이며 더구나 범청학련 남측본부 후원회 회원들까지 구속한 것은 반통일반민주적 폭거의 전횡이 아닐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결의문은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조국통일진군은 그 어떤 탄압으로써도 막을 수 없다면서 국정원과 이회창을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대중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전투기강매 항의시위
광주전남 네티즌연합 회원

광주전남지역 대학생과 중고등학생 등 인터넷을 통해 구성된 광주전남 네티즌연합 회원 100여명은 지난 5일 오후 3시 조선대 후문 헌혈의 집앞에서 미국의 전투기강매에 대한 항의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이날 집회를 열고 미국이 여러 경로를 통해 ≪F-15K≫전투기를 강매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이에 대한 항의로 미국상품불매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뒤 조선대 후문을 출발해 동구청에서부터 광주 우체국앞까지 가두시위를 벌이며 시민들에게 미국상품불매운동에 나설 것을 호소하는 전단을 나누어주는 등 홍보활동을 벌였습니다.

태양절 기념집회
루마니아, 독일 공산당

태양절과 조선인민군창건 70돌에 즈음해 2일과 3일 루마니아공산당과 독일공산당 청사들에서 기념집회가 진행됐습니다. 집회들에는 루마니아 공산당 서기장과 조직서기를 비롯한 당지도부성원들과 당원들, 독일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조직서기, 베를린시당위원회 위원장, 당원들과 주체사상연구조직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집회들에서는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루마니아 공산당 조직서기는 연설에서 인류의 행복한 미래와 조선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바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한평생은 인류사와 국제공산주의운동사에 가장 빛나는 장으로 아로새겨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김정일**영도자님의 독창적인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활력에 대해 이북의 현실과 결부해 상세히 언급했습니다.

독일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연설에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책동속에서도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오셨다면서 사회주의 이북은 세계 진보적 민중들의 희망의 등대라고 강조했습니다.

누가 한반도평화를 지키는가

…
선군정치여! 너는 이북만을
위한 것이 아니였다
이남의 우리도 함께
동족으로 지켜주었다

선군정치가 아니였으면
핵병기가 광란하는 이 땅에
미국이 살판치는 이남땅에
공장은 돌아가고
학교는 문을 열수 있으랴
저 여의도의 국회인들 있고
제주도의 귤밭인들 있으랴
겨레고 강토고 결단난 땅에
민족의 삶이 있으랴

기적이다
이것은 참으로 기적이다
세계최대의 열점지대
가장 첨예한 대결의 땅에
애당초 평화가 있다는
그 자체가
…
내 감히 단언하노라
이남 민중이 누리는 평화
그것은 이북의 덕분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덕분

민중시인 오철승씨의 장시 ≪겨레사랑 선군정치여≫의 한 귀절이였는데요. 반미운동가 김철수씨의 글 ≪누가 한반도평화를 지키는가≫를 임기수씨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미양군의 대규모합동군사훈련이 일단 막을 내렸다.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훈련을 통합한 이번의 전쟁연습은 핵선제공격을 노린 계획적이고 모험적인 북침전쟁연습이였다.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이북을 ≪악의 축≫으로 매도해온 부시집단은 한반도에 대규모 침략무력을 공공연히 집결시키고 이북을 불의에 침공할 흉계를 품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에도 끝내 북침을 단행하지 못했다.

4만3000여명의 미군, 65만여명의 국군, 도합 70만의 대병력과 최신예 첨단장비를 총투입하고서도 이북으로는 감히 총탄 한발 날려보내지 못했다.

북측지역에로의 가상적인 이동전개, 상륙과 중심타격작전을 발광적으로 벌이면서도 이북의 영해와 영공, 영토는 0.001미리미터도 침범할 수 없었다. 선군정치로 존엄 떨치는 이북은 단호한 대응으로 한미군의 북침도발음모를 결렬시켰다.

≪침략자들은 무주고혼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북의 이 폭탄선언은 빈말이 아니다.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로 이북은 그 어떤 대적도 쳐물리칠 수 있는 강국으로 위세 떨치고 있다.

이북군이 보유한 최강의 무기는 사상정신력이다. 이북군은 모두가 자폭용사, 총폭탄용사이다. 자기의 최고사령관을 위해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는 것을 제1사명, 제1자랑으로 여기는 이북군을 당할 군은 이 행성에 없다. 미국은 바로 이를 두려워하며 그 위력앞에 전율하고 있다.

이북군의 무장장비는 세계 정상급이다. 지구상 그 어디에 있건 우리의 타격을 피할 자리가 없다고 하는 이북. 강력한 공격력은 물론 완벽한 방어력을 갖춘 이북군이다.

김정일장군의 선군영도를 받는 무적필승의 강군이 조국수호의 총검을 굳건히 거머쥐고 있고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 있기에 미국이 수십만 병력을 동원해 놓고서도 어쩌지 못했다.

김정일장군의 선군영도아래 세계 최강의 강국으로 존엄 떨치는 이북이 아니였다면 한반도는 21세기의 가장 치열한 전쟁판으로 화하고 말았을 것이다. 전쟁이 터졌다면 한반도는 발칸반도와 아프가니스탄보다 더 황량한 폐허로 되고 말았을 것이다. 서울은 물론 이 땅 전체가 불바다가 되고 국민 모두가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것이라는 것은 재론할 여지도 없다. 잿가루만 날리는 땅에 무슨 정치가 있고 정치인이 있겠는가. 황량한 벌판으로 화한 마당에 무슨 경제요 GNP요 하는 넋두리가 울려 나오겠는가. 이북이 지켜주는 평화의 덕을 우리 이남민이 톡톡히 보고 있다.

정녕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가 있어 우리 민족의 안녕, 우리 국민의 평화가 있다.

새 역사연구회 정진철씨가 한반도의 평화유지군은 미군이 아니라 이북군이라고 한 것은 얼마나 옳은 말인가. 그런데도 이 땅의 반통일집단과 군부호전계층은 전쟁의 온상이며 악의 화근인 주한미군영구주둔을 애걸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수조원씩이나 탕진하며 미국제병기를 끌어들이고 민족의 공멸을 불러올 북침전쟁을 부르짖고 있다. 그러면서도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는 이북을 악의에 차서 비방하는 망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 실로 천벌을 받을 짓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은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를 받는 이북에 미래도 운명도 맡겨야 한다. 그 길에 민족의 평화가 있고 통일이 있다. 7천만 겨레의 희망찬 미래도 빛나는 존엄도 있다.

한반도에 전쟁이 없이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건 전적으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의 덕분이라는 걸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겁니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7일~8일

투쟁으로 분쇄하자

생존권사수를 위한 노동대중의 투쟁이 힘있게 벌어질수록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당국의 탄압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요. 그럼 이번엔 ≪투쟁으로 분쇄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존권을 요구해 나선 노동자들에 대한 공안탄압이 더욱 살벌해지고 있는데요.

이미 알려진 것처럼 지난 3월 25일 새벽 경찰은 생존권과 민주권리를 위해 농성중이던 노동자들을 무더기로 체포구속하는 만행을 자행했습니다. 새벽 0시에 43개중대 전투경찰을 농성장에 전격 투입한 경찰당국은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며 노조원 300여명을 연행했던 것입니다.

경찰당국의 이러한 횡포에 분노한 우리 노동자들은 무쇠주먹을 불끈 쥐고 투쟁의 각오를 더욱 굳게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노동자들은 미국이 강요하는 신자유주의경제정책으로 인해 온갖 불행과 고통속에서 신음하고 있는데요. 이 살인적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수백만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직업을 잃고 실업자로 전락되어 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일터에서 쫓겨난 수많은 노동자들의 가정이 파탄되고 그 자식들은 고아아닌 고아가 되어 천대와 멸시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처지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신자유주의경제정책을 더욱 강도높이 강요하고 있으며 악덕업주들은 이를 강행, 실시하면서 더많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벌이는 생존권과 민주민권쟁취운동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경찰당국은 초보적인 생존권쟁취를 요구해 나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며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회 및 결사에 관한 자유는 초보적인 권리입니다. 가진 것없는 우리 노동자들이 삶의 터전을 지키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총파업과 집회, 시위에 의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마저 짓누르고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 노동자들을 영원히 권력과 자본의 노예, 가진 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부속물로 매장해버리려는 속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노동자들이 어찌 분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이상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가 공안탄압속에 묵살되고 수많은 노동형제들이 피투성이 되어 쓰러져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경찰당국이 탄압에 1300만 노동형제들이 단결된 힘으로 맞서야 할겁니다. 더욱 심화되는 경찰탄압을 분쇄하지 않고서는 생존권과 민주민권을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대중의 투쟁은 더 많은 희생을 치루게 될 겁니다. 때문에 노동형제들은 단결된 힘으로 완강한 투쟁으로 경찰탄압을 분쇄해야 할겁니다. 그러자면 굳게 뭉쳐야 합니다. 1300만 노동대중이 하나로 굳게 결집해서 조직된 역량으로 경찰당국의 탄압에 맞서 싸워나가야 할겁니다.

승리는 단결해서 끝까지 싸우는 노동자대중의 투쟁에 있습니다. 우리 1300만 노동대중은 공안탄압분쇄하고 자기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분기해 나서야 할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근로민중이 주인된 참세상을 기어이 안아와야 할겁니다.

공안당국의 만행에 기가 꺾일 우리 노동대중이 아닙니다. 경찰탄압이 심화될수록 우리 노동대중 하나로 뭉쳐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여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노골화되는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 분쇄해야 할겁니다.

노동자 농어민 시간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8일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4월 8일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 국제친선전람관 참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을 맞으며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과 우당위원장들,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들이 7일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하였다.

국제친선전람관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지니신 높은 국제적권위와 조선혁명위업에 대한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굳은 련대성을 보여 주는 **김일성**조선의 국보들이 전시되여 있는 곳이다.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은 먼저 향산읍에 모신 **김일성**주석의 동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김일성주석께 세계5대륙의 170여개 나라 당, 국가, 정부 수반들을 비롯한 진보적인사들과 조직들이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16만 5, 800여점의 선물들을 보내온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그들은 전람관의 선물관들을 돌아 보았다.

전국청소년학생들 만경대고향집에로의 답사행군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을 맞으며 전국청소년학생들의 만경대고향집에로의 답사행군이 7일 진행되였다.

행군에는 청년동맹일군들, 전국 각지에서 온 근로청년들과 청소년학생 4, 000여명이 참가하였다.

청소년학생들은 행군에 앞서 평양의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김일성**주석의 동상에 꽃바구니들과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평양시민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연도에서 행군참가자들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만경대에 도착한 청소년학생들은 김보현선생님과 리보익녀사, 김형직선생님과 강반석녀사의 묘에 화환과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그분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그들은 만경대혁명사적관을 돌아 본 다음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시여 혁명의 큰 뜻을 키우신 유서 깊은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였다.

≪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 만세≫ 출판발행

조선에서 선전화 ≪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 만세≫를 출판발행하였다.

선전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을 맞는 온 나라 인민의 한결 같은 마음을 잘 반영하고 있다.

선전화에는 태양의 미소를 지으신 주석의 영상을 중심에 모시고 아래에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과 주체사상탑, 개선문, 천리마동상이 형상되여 있다.

그리고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조선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 있고 긍지로운 인민으로 되게 해 주시고 인류자주위업의 앞길을 환히 밝혀 주신 주석을 우러르는 각계층 인민들의 환희로운 모습도 반영되여 있다.

선전화는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선군령도 따라 강성대국건설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인민의 기상을 잘 반영하였다.

성대히 진행될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태양절(4.15)을 맞으며 평양에서는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성대히 진행되게 된다.

이 축전은 주체71(1982)년부터 해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기념일을 맞으며 진행하는 국제적인 예술회합이다.

주석의 탄생 90돐을 맞는 올해의 축전에는 세계 5대륙의 60여개 나라에서 오는 국제국내콩클수상자들과 명배우들로 구성된 90여개의 예술단체들 그리고 해외동포예술단과 조선예술인들이 참가하게 된다.

성악, 무용, 기악, 교예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오르게 될 축전에는 외국의 예술인들만도 근 1, 000명이나 참가하게 된다.

단독 및 조별 공연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축전에서는 우수한 단체와 개인들에게 상장과 상금, 상이 수여된다.

축전에서는 ≪제5차 현시대와 민족예술에 관한 미학토론회≫도 진행된다.

축전기간 참가자들은 조선의 기념비적건축물들과 룡문대굴을 비롯한 명승지들을 참관하게 된다.

또한 내외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준비되고 있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관람하는 특전도 누리게 된다.

로골화되는 미행정부의 반공화국정보모략책동

조선중앙통신 론평

미의회조사국은 최근 의회에 제출한 미국남조선관계보고서라는데서 우리가 금강산관광사업대가금을 군사용으로 ≪전용≫했다느니 뭐니 하며 우리를 반대하는 모략소동을 벌리고 있다.

보고서에 반영된 자료들이 미중앙정보국과 남조선강점미군사령부의 날조자료를 되받아 옮긴것이라는 점을 주목할 때 의회무대를 배경으로 한 이 소동의 정치적동기와 목적은 명백해 진다.

이번 소동은 한마디로 6.15북남공동선언의 리행과 북남협력교류를 가로 막으려는 미행정부의 로골화되는 반공화국정보모략책동의 일환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머지않아 조선민족은 조국통일의 리정표인 6.15북남공동선언발표 2돐을 맞이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조선반도에서는 6.15북남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우리 민족끼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인민들의 의지와 노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부쉬행정부가 우리에 대한 비방을 계속하는 한편 그를 정당화하기 위해 정보기관과 군부를 조종하여 허위적인 정보자료를 조작류포시키고 있는데서 그들의 불순한 정치적기도가 드러나고 있다.

미행정부의 이러한 책동은 결국 조선반도에서 새전쟁을 도발하려는 저들의 기도를 합리화하고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지향을 거세하며 남조선당국에 압력을 가하여 더 많은 무기를 팔아 넘기는 동시에 북과 남사이의 협력의 상징으로 되여 있는 금강산관광사업을 파탄시켜 북남관계를 악화시키려는 목적에서 출발한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미국이 리성을 가지고 건전하게 행동할것을 이미 여러번 경고한바 있다.

미국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고집하면서 6.15북남공동선언의 리행과 북남협력교류를 가로 막기 위한 정보모략책동에 계속 매여 달린다면 그것은 우리 인민의 반미감정을 더욱 촉발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과거청산이 없는 조일관계개선은 있을수 없다

로동신문 론평

요즘 일본에서 있지도 않은 우리의 ≪랍치≫문제에 대한 허튼 잡소리들이 소란스럽게 울려 나오고있다. 특히 반동언론들과 극우익세력들이 그 무슨 ≪랍치≫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못된 소리를 내돌리며 우리를 가해자로 몰아 붙이려고 소동을 피우고있다. 그러면서도 조일관계의 기본핵으로 되는 일본의 과거죄행청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일본반동들의 우리의 ≪랍치≫문제에 대한 소동은 조일관계개선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우리의 ≪랍치≫문제에 대하여 떠들면 떠들수록 일본의 랍치흉집이 더 드러나고 커질뿐이다. 일본반동들의 ≪랍치≫문제소동은 조일관계개선에는 백해무익하다. 일본이 조일관계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조일관계의 선결문제로 되는 일본의 과거죄행청산에 응당 낯을 돌려야 한다. 일본의 과거죄행청산은 조일관계의 가장 중핵적인 문제이다.

일본은 지난 날 조선인민에게 용납 못할 대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이다. 일본은 20세기 전반기에는 무력으로 조선을 침략하고 가장 야만적인 강점통치를 실시하였으며 20세기 후반기에는 우리 나라에 대한 적대시정책과 압살책동에 매달려 조선의 통일과 발전에 장애를 조성하였다. 이로 하여 일본은 우리 인민의 백년숙적으로 되였으며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서 일본에 대한 원한과 분노의 감정은 새 세기에 들어 와서 더욱 격렬해 지고 있다. 조일관계는 피해자와 가해자사이의 관계이다. 조일관계를 개선하자면 가해자인 일본이 피해자인 우리 인민에게 과거죄행에 대하여 철저히 사죄하고 보상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마음의 상처가 가셔 져야 가해자에 대한 원한과 분노가 사라지고 상대를 바로 보게 되며 신뢰의 기초가 마련되게 된다.

죄를 지었으면 깨끗이 씻어야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기의 죄과에 대하여 사죄, 보상하는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너무나도 응당한것이다. 이렇게 하는것은 개별적인 사람들사이의 관계에서뿐아니라 나라들사이의 관계에서도 적용되는 보편적인 관례이다. 그런데 일본은 패망후에 제때에 처리했어야 할 과거청산문제를 반세기가 넘는 오늘까지 이러저러한 부당한 구실을 내대고 미루어 왔다. 일본이 응당 리행해야 할 사죄, 보상의무를 회피하고 있는것으로 하여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인 조일 두 나라는 의연히 적대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진정으로 조일관계개선을 바란다면 과거청산에 성근한 자세로 나와야 한다. 일본의 과거청산이야말로 조일관계개선의 근본의 근본이며 기본열쇠이다. 그런것만큼 일본이 죄 많은 과거에 대하여 우리 인민에게 사죄,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언제가도 조일관계개선이란 있을수 없다.

우리는 조일관계개선에 절실한 리해관계가 있는것도 아니며 일본에 대하여 그 어떤 기대를 가지는것도 없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사죄와 보상을 받아 내는것은 우리의 당당한 권리이다.

우리가 일본에 대하여 과거청산을 요구하는것은 단순히 며푼의 돈을 받아 내자는 경제실무적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조선민족이 자기의 존엄과 자주적권리를 옹호하고 행사하기 위한 중대한 정치적문제이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우리 대에 일본의 과거죄행을 반드시 결산하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한결 같은 의지이다.

일본이 과거청산을 오래 끌면 끌수록 죄는 덧쌓이고 빚은 늘어 나게 될것이다.

성근한 사죄와 보상은 일본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것이다.

일본반동들이 일본에 대한 전체 조선민족의 피 맺힌 원한과 분노를 외면하고 삐뚤어 진 소리를 계속하면서 과거청산을 회피하려 한다면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가 차례지게 될것이다.

일본은 문제의 심각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하루빨리 과거청산을 위한 정치적용단을 내려야 한다.

≪동지애의 노래≫ 높이 부르며 혁명의 천만리를 끝까지 걸어 가자

로동신문 사설 - 주체91, 4월 8일

우리 조국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천만 군민이 동지애로 굳게 뭉친 무적필승의 나라이다. 살아도 죽어도 위대한 최고사령관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 할 결사의 맹세로 피를 끓이는 충직한 군대와 인민이 있기에 그 어떤 원쑤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백전백승의 선군기치 따라 21세기 강성대국의 높은 령마루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이 땅, 이 하늘가에는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투쟁과 신념의 노래, ≪동지애의 노래≫가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동지애로 개척하신 우리 혁명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동지애의 사상을 높이 받들고 끝까지 완성해 나가려는것이 뜻 깊은 태양절을 맞이하며 우리의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다지는 철석의 신념이며 맹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동지애는 우리 당의 정신력이며 우리 혁명의 추진력입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동지애의 노래≫를 부르며 승리를 떨쳐 가는 긍지 높은 군대이며 인민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끝까지 가야 할 혁명의 길에 영원히 변함 없을 결사의 각오와 맹세를 장엄하고도 비장한 선률속에 새겨 주는 ≪동지애의 노래≫와 같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을 세차게 끓이는 혁명의 노래는 없다.

≪동지애의 노래≫가 나온지 수십년이 되고 세기도 바뀌여 졌지만 이 노래는 력사의 폭풍우를 뚫고 승승장구하는 주체혁명의 진군가로 이 땅우에 더욱 높이 울리고 있다. 오늘 위대한 최고사령관과 천만 군민이 ≪동지애의 노래≫를 부르며 시련을 함께 헤쳐 나가는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의 일대 과시로 된다.

≪동지애의 노래≫는 오늘의 선군시대에 사는 혁명가들이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심오한 혁명의 뜻을 심장마다에 새겨 주는 위대한 혁명의 메아리이다.

혁명에서 뜻과 생사를 같이 하는 동지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으며 동지적사랑보다 더 위력한 힘은 없다. 그 어떤 리해관계로가 아니라 뜻과 의지와 사랑으로 하는것이 혁명이다. 동지애는 죽음도 초월하는 비상한 정신력을 발휘하게 한다.

지금 우리는 적들과 치렬한 대결전을 벌리고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언제든지 한번은 최후의 승패를 결단하여야 할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처자의 사랑도 대신할수 없는것이 동지애이고 그 어떤 핵무기보다 귀중한것이 혁명동지이다. 운명을 같이 하는 동지만 있으면 천리 불바다도 뚫고 나갈수 있고 천만 대적과도 싸워 이길수 있다.

피로써 개척되는 혁명의 천만리길에서 같이 싸우고 같이 승리하려는 비상한 각오, 세상이 열백번 변한다 해도 동지적의리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겠다는 투철한 립장, 이것이 새 세기에 울리는 ≪동지애의 노래≫의 근본정신이다. 죽음도 두려워 하지 않는 혁명가들의 사생결단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동지애의 노래≫야말로 누가 누구를 하는 치렬한 계급투쟁의 기치로, 붉은기정신의 상징으로 되고 있다.

≪동지애의 노래≫, 이것은 위대한 혁명가 **김정일**동지의 철의 신념과 동지관이 집대성되여 있는 선군시대의 주제가이다. **김정일**동지께 있어서 동지애는 모든 혁명활동의 출발점으로 되고 있다. 동지들이 있기에 최고사령관이 있고 천만의 동지들이 있는 한 그 무엇도 두려운것이 없다는 철석의 신념을 지니시고 사선천리길도 서슴없이 헤치시는분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다.

≪동지애의 노래≫에는 동지애를 혁명의 천하지대본으로 내세우고 동지애로 백승을 떨치시려는 **김정일**동지의 혁명 철학이 깃들어 있다. 세상에 우리의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같이 ≪동지애의 노래≫를 사랑하시고 ≪동지애의 노래≫에서 무적의 힘을 얻으시며 혁명전사들과 함께 준엄한 천만리길을 헤치시는 위대한 동지, 위대한 혁명가는 없다.

동지애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구현하시는 선군정치의 근본초석으로 되고 있다. 총대도 혁명동지를 위해 필요하며 동지애가 있어야 총대가 위력을 발휘할수 있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총대관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그 엄혹한 시기에도 동지들을 믿고 선군의 길을 택하시였고 혁명동지들과 고락을 함께 하시며 선군혁명 천만리를 드팀없이 걸어 오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보다 뜨거운 동지애에서 위대한 선군정치방식이 태여났고 세계가 경탄하는 백두산혁명강군이 자라났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는 사생결단의 동지적사랑이 있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최악의 역경도 승리적으로 뚫고 20세기의 영웅서사시를 창조할수 있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승리야말로 위대한 장군님의 동지애사상이 가져다 준 일심단결의 승리이다. 오늘 이 땅우에 울리는 ≪동지애의 노래≫는 천지풍파가 닥쳐 와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충직한 동지로 살며 싸우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비상한 각오와 맹세의 분출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령도자에 대한 도덕의리를 생명보다 귀중히 여기는 인민이다. 위대한 령도자와 뜻과 운명을 같이 하려는 우리의 동지애의 세계에는 사심과 사리가 없고 가식과 변심이 있을수 없다.

우리 혁명전사들은 일찍부터 숭고한 동지적의리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당과 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였고 그이의 령도 따라 년대와 년대를 이어 가며 위대한 승리의 력사를 수 놓아 왔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순결의 동지들의 대오에는 항일의 혈전만리와 전화의 불비속을 뚫고 온 오랜 혁명가들도 있고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위업을 앞장에서 실현해 온 충직한 전사들도 있으며 ≪고난의 행군≫의 시련을 영웅적으로 돌파한 결사관철투사들도 있다.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장군님의 동지애의 사상으로 숨 쉬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운명을 같이 할 결사의 맹세로 가슴 불 태우기에 우리 혁명대오가 필승의 위력을 떨치고 있다.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동지애의 력사는 세기를 이어 계속되고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동지애의 노래≫는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는 그날까지 높이 불러야 할 영원한 투쟁의 진군가이다.

백년이 가고 천년이 가도 ≪동지애의 노래≫에 담겨 진 사상과 철학은 절대로 생명력을 잃을수 없다. 우리 혁명의 앞길에 ≪고난의 행군≫과 같은 시련이 또다시 닥쳐 와도 우리가 변함없이 불러야 할 노래가 ≪동지애의 노래≫이며 제국주의원쑤들과의 최후의 혈전에서 높이 울려야 할 노래도 ≪동지애의 노래≫이다.

≪동지애의 노래≫는 제국주의를 타승하고 사회주의기치를 끝까지 고수하게 하는 멸적의 승전가이다.

동지애가 발휘하는 위력은 핵무기보다 강하다. 혁명의 원쑤들에게 무서운 공포와 전률을 주는 최대의 무기는 령도자와 군민이 생사를 같이하는 동지애의 위력이다.

오늘 세계적범위에서 무분별한 강권과 전횡에 매달리고 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를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흉계를 더는 숨기지 않고 있다. 극도의 오만과 과신에 사로잡혀 핵무기까지 휘두르려는 제국주의의 횡포앞에 우리는 추호도 물러설수 없다.

제국주의와 생사를 판가름하는 피의 결전에서 우리가 높이 들고 나가야 할 구호는 동지애의 구호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동지애의 품을 떠나서는 순간도 살수 없고 장군님을 따르는 길에서는 죽어도 생을 잃지 않는다는 철석의 신념이 맥박치는 대오에서 길영조와 같은 수천수만의 자폭용사, 수령결사옹위투사들이 배출되고 동지를 위하여 천리 불바다도 서슴없이 헤치는 불굴의 영웅들이 나오게 된다.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동지애의 심장에 운명의 피줄을 잇고 삶도 죽음도 함께 하려는 천만 군민이 있는 한 우리를 건드리려는 원쑤들은 파멸의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다.

≪동지애의 노래≫는 만난을 헤치며 강성대국의 미래에로 힘차게 나아가게 하는 장엄한 진군가이다. 우리는 맨주먹밖에 가진것이 없고 령이나 다름 없는 어려운 조건에서 동지적단결의 힘으로 당도 건설하고 국가도 세우고 사회주의영웅서사시도 창조하였다. 동지가 있고 동지적단결만 있으면 천하도 얻을수 있고 그 어떤 기적도 창조할수 있다는것이 조선혁명의 력사가 보여 주는 진리이다.

제국주의고립압살책동이 날로 악랄해지고 모든것이 어려운 오늘의 조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밑천, 최대의 힘은 동지애로 뭉친 일심단결이다. 우리 군대도 영원히 최고사령관과 뜻과 운명을 같이 하는 동지애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우리의 제도도 동지애의 정신이 차넘치는 혼연일체의 대화원으로 더욱 굳게 다지려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철의 의지이다. 새 세기의 진군길에 ≪동지애의 노래≫가 더 높이 울릴 때 불사조와 같이 싸우는 영웅조선의 기개가 높이 떨쳐 지고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 없는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게 될것이다.

우리의 모든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동지애의 노래≫에 새겨 진 심오한 철리를 심장에 새기고 위대한 장군님 따라 선군혁명의 천만리를 끝까지 걸어 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무한대한 동지애의 세계를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한없이 숭고한 동지애의 세계에서 자라나고 혁명가의 참된 삶을 누려 온 **김정일**동지의 아들딸들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김정일**동지는 령도자이시기전에 위대한 인간, 위대한 동지이시며 천만의 운명을 지켜 주시는 어버이이시고 스승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동지애의 사상에는 나는 곧 그대이고 그대는 곧 나라는 위대한 믿음의 철학도 있고 돌우에도 꽃을 피우고 천만 심장을 뜨겁게 울리는 숭고한 사랑이 있으며 동지들만 있으면 천하대적도 반드시 타승한다는 백승의 철리도 있다. 우리는 ≪동지애의 노래≫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뜨거운 동지적사랑과 의리의 세계를 체득하고 그것을 삶의 거울로 삼아야 한다. 동지를 믿어도 **김정일**동지처럼 굳게 믿고 **김정일**동지식으로 동지적단합을 이룩하여 그 어떤 폭풍도 맞받아 뚫고 나가야 한다.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장군님의 동지애의 사상으로 숨 쉬고 혁명하는 불패의 대오가 되여야 한다.

동지애로 승리만을 떨쳐 온 우리 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세기를 이어 빛내여 나가야 한다.

조선혁명의 력사는 동지애의 력사이며 우리 혁명의 전통은 곧 동지애의 전통이다. ≪동지애의 노래≫에는 일찌기 가장 엄혹한 조건에서 먼저 동지를 얻고 그 다음에 총을 얻고 당도 정권도 건설하시였으며 그 위력으로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 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력사가 깃들어 있다. 혁명동지 한 사람을 얻기 위해 사선 천리도 헤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동지애의 세계에서 우리 혁명의 시원인 ≪ㅌ.ㄷ≫가 태여났고 항일의 무장대오가 자라났으며 혁명의 앞길이 열리였다. 천금 주고도 살수 없는 동지적사랑을 피 끓는 심장마다에 새겨 안고 다진 맹세 끝까지 지키는 동지애의 전통이야말로 주체혁명의 명맥을 끝까지 이어 주는 만년재부이다.

우리는 백두의 동지애전통을 끗끗이 이어 나가는 21세기 ≪ㅌ.ㄷ≫열혈투사가 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동지애의 빛나는 전통을 창조한 ≪ㅌ.ㄷ≫의 열혈투사들은 수령을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받들어 온 진정한 동지들이였고 끝까지 생사운명을 같이 한 전우들이였다. 혁명의 준엄한 길을 헤쳐 나가야 할 우리 혁명전사들은 ≪ㅌ.ㄷ≫의 용사들처럼 죽어도 동지적의리는 베고 죽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절해고도에 홀로 있어도 ≪동지애의 노래≫를 부르고 죽음판에서도 최고사령부를 찾아 오는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가 되여야 한다.

(12면에 계속)

여러 단계의 혁명을 빛나게 실현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업적

≪기념특강≫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위인의 풍모를 천품으로 지니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제8회)
리종욱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4월 8일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먼저 시간까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사상이론적 업적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백전백승의 위대한 영도로 이룩하신 불멸의 영도업적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위대한 영도는 위대한 현실을 창조합니다. 수령의 영도의 위대성은 인류해방위업 수행에서 이룩한 업적의 높이에 의해서 평가됩니다.

인류해방투쟁사에는 사회의 발전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위업에서 거대한 업적을 이룩하고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긴 위인들, 영도자들이 적지 않으며 그들의 이름과 업적은 역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쌓아올리신 영도업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모든 분야에서 이룩된 비상히 다방면적이고 귀중한 업적이며 불멸의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해서 특출합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영도업적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당대에 여러 단계의 혁명을 열외없이 빠른 속도로 빛나게 수행하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 시간에는 여러 단계의 혁명을 빛나게 실현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업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영도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토지개혁

≪우리 수령님과 같이 당대에 그처럼 위대한 업적을 이룩한 영도자는 동서고금에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은 비범하고 세련된 영도로 민족해방혁명과 계급해방혁명,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을 비롯한 여러 단계의 혁명을 승리적으로 영도하신 영도의 거장이셨습니다. 조선혁명은 뒤떨어진 식민지반봉건사회의 조건에서 진행된 어렵고 복잡한 혁명이였으며 처음부터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해야 하는 생소하고도 간고한 혁명이였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력적인 영도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포괄하는 두단계의 사회혁명과 빈터위에서 나라를 일떠세우는 두 차례의 복구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수호하는 두 차례의 혁명전쟁을 승리적으로 치루셨으며 사회주의 제도를 세운 다음에도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계속 수행해서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치도록 하셨습니다.

공산주의 운동사에는 노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해방위업을 승리적으로 영도한 탁월한 수령들이 있었지만 우리의 위대한 수령님과 같이 당대에 이렇듯 거창하고도 심각한 여러 단계의 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신 걸출한 수령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계급의 혁명투쟁사에서 영도자가 당대에 한 단계의 혁명을 승리에로 이끈 사실을 놓고서도 그 업적의 위대성에 대해서 감탄하고 칭송에 마지않았다는 것을 염두해 둘 때 한생에 그렇듯 여러 단계의 혁명을 연이어 승리적으로 이끄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업적은 실로 경이적인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은 간고하고 복잡한 여러 단계의 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열외없이 빠른 기간에 그리고 가장 철저하게 수행하도록 영도하신 영도의 거장이셨습니다. 계속혁명과 사업전개에서의 높은 속도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지니신 혁명적 사업기풍이며 혁명방식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혁명을 영도하신 전기간 새로운 혁명적 사업기풍과 혁명방식으로 모든 사업을 전개해 나가시여 혁명운동사상 일찍이 없었던 높은 전진속도를 창조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 후 심각하고 초미한 토지혁명을 불과 20여일 동안에 수행하고 민주주의혁명의 전반적 과업을 1년 남짓한 기간에 완성하셨으며 사회주의혁명도 4-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나라에서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세우기까지는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시기를 포함해도 1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유럽의 일부 나라들에서는 토지개혁만 하는데도 3년 이상이나 걸렸으며 농업협동화는 종래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전 쏘련에서는 10월 혁명이후, 농업집단화를 완성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기까지는 근 20년이 걸렸습니다. 이 숫자와 사실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빠른 속도로 전진시켜 오신 조선혁명의 참모습이 그대로 비껴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위업 수행에서 창조하신 이러한 기적적인 속도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되였습니다. 조선의 창공높이 솟아오른 천리마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도밑에 순결한 **** 질풍같이 달려온 조선혁명의 기적적인 모습과 수령님의 위대한 영도업적을 빛나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혁명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전진시켜 나가는데서 뿐아니라 모든 혁명단계의 과업을 철저히 수행해나가는데서도 세계적인 모범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를 원만히 실현하고 혁명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끌어가기 위한 필수적 요구입니다. 사회주의건설의 역사는 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지 못할때에는 혁명이 중도반단 되거나 변질되게 되며 마침내는 좌절된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전 쏘련을 비롯한 동유렵의 여러 사회주의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것은 이 나라들에서 모든 단계의 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지 못한 것과도 중요하게 관련되여 있습니다. 예컨데 이전 쏘련에서 사회주의혁명의 승리한 직후 사회계급구성을 보면 주민의 많은 부분이 소부르주아계층이었고 전복된 착취계급의 잔여분자들의 수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서는 적대분자들을 반대하는 계급투쟁도 중도에서 포기하고 사람들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상사업도 도중에서 줴 버렸던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혁명의 빠른 속도와 철저성을 훌륭히 결합시키신 탁월한 영재이셨습니다. 조선혁명이 안고 있는 사회정치적 및 경제적 변혁의 과업은 다양하고 복잡했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어느 혁명 단계의 사회변혁이든지 사소한 빈틈이나 미흡한 점도 없이 철저히 수행해 나가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민주주의혁명시기 초미의 과제로 나섰던 토지개혁도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서 짧은 기간에 수행하면서 가장 철저히 수행되였습니다. 그리고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기본 과업이였던 개인농민과 개인수공업자, 자본주의적 상공업자들을 협동경리에 망라시키고 경리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과업도 인간개조 사업과 밀접히 결부시켜 높은 수준에서 완수되였습니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 모든 단계에서 내세운 과업이 철저히 수행되였기 때문에 우리 인민은 언제나 혁명의 다음 단계의 과업 수행에 지체없이 달라붙어 힘있게 밀고 나가 제때에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비상히 폭넓고 다방면적인 내용을 안고 있는 여러 단계의 과업을 그처럼 열외없이 빠른 속도로 철저히 수행한 것은 실로 세계를 진감시키는 위대한 변혁이고 많은 사람의 경탄을 자아내는 위대한 기적이였습니다.

공산주의운동이 개척되여 백수십년이 지나가고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건설에 들어선 때로부터 수십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혁명과 건설을 이렇듯 빠른 속도로 전진시키면서도 그것을 철저하게 수행해 온 나라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여러 단계의 혁명과업을 짧은 역사적 기간에 철저히 수행하심으로 해서 우리 인민의 운명에서는 실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망국노의 설움을 안고 생사운명의 기로에 놓여있던 우리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된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인민이 자기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높은 창조성을 지닌 위대한 인민으로 성장발전한 것입니다. 한세기도 못되는 사이에 우리 인민의 운명에서 일어난 이러한 위대한 전변은 짧은 역사의 순간에 여러 단계의 혁명을 빛나게 수행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업적의 위대성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밑에 여러 단계의 혁명이 수행된 것으로 해서 우리 조국의 위용과 우리 인민의 존엄은 온 세상에 찬연히 빛나게 되였습니다. 지난날 세계지도 위에서 빛마저 잃고 불우한 처지에 있던 우리 조국이 오늘 자주적이고 존엄 높은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으로 그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영도의 결과입니다.

실로 위대한 영도로 여러 단계의 혁명을 빛나게 수행하신 우리 인민의 운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고 우리 조국의 위용을 떨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업적은 승승장구하는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체혁명위업의 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도업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리랑≫ 관람단모집 본격화 될 것

그간 진행돼온 통일단체들의 ≪아리랑≫ 관람단 모집이 임동원 특사 방북과 10일로 예정된 남북민간실무접촉 결과에 따라 본격화 될 전망이다.

남북민간실무접촉을 하루 앞둔 9일, 관람단 모집 현황을 점검해 본 결과, 임동원 특사 방북시 ≪아리랑≫과 관련해 논의되지 않아 구체적인 진정은 없는 상황이지만 남북관계의 개선이 기대되고 있어 세인들의 ≪아리랑≫ 관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몽골을 경유 ≪아리랑≫ 관람단을 모집하는 것으로 눈길을 끌고 있는 (사)한민족아리랑 연합회는 모집 4일째인 현재 200여명이 신청했다.

(사)한민족아리랑연합회의 경우 신청자들의 연령층은 5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단체신청도 많아 ≪호응이 좋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7대종단 소속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한달여 간의 관람단 모집을 거쳐 현재 100여명이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무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이나 경로 등이 없는 상태라 명단만을 받고 있다≫며 이후 ≪민간실무접촉의 결과를 보고 구체적인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리랑 축전 관람단≫ 사업을 지난달 말부터 진행하고 있는 통일연대는 소속 단체별로 관람단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소속 단체들 중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몇몇 단체만이 신청접수를 받고 있지만 남북민간실무접촉을 기점으로 다른 소속단체들도 ≪아리랑 축전 관람단≫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부터 관람단 모집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 통일위원회에 의하면 민주노총 임원진 사퇴 등의 내부 문제로 신청자 명단은 아직 집계를 하지 못했지만 분위기는 좋다고 밝혔다.

또 통일부에 100여명의 참가 신청자 명단과 ≪이북주민접촉 승인요청≫을 제출한 통일연대 소속 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는 현재 ≪아리랑≫ 관람단 모집인원이 130~140여명이라고 잠정집계하고 오는 11일에 홈페이지를 통해 ≪통신보고≫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실천연대 관계자는 이번 임동원 특사의 방북은 ≪아리랑 관람이나 민간교류의 큰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10~12일 (남북민간)실무접촉에서 큰 틀이 나올 것≫이라며 기대감을 비쳤다.

민화협 소속인 (사)겨레하나되기운동연합은 지난 6일부터 관람단을 모집해 현재 50여명이 모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민화협은 10일부터 가질 남북민간급 실무접촉 결과를 가지고 내부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밝혔다.

따라서 지난달 말경부터 통일운동 단체들을 중심으로 진행해 왔던 ≪아리랑≫ 관람단 모집도 남북민간실무접촉의 결과에 따라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아리랑≫ 관람은 단순 관광이 아니라 민족의 화해와 단결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정부와 더불어 남북교류의 또 다른 한 축인 민간교류의 한 장이라는 점에서 통일단체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의미를 더하고 있다.

민간실무접촉, ≪아리랑≫ 참가 등 논의

임동원 특사의 방북 때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이북 ≪아리랑≫행사의 참가여부와 참가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차원의 남측 대표단이 10일 방북길에 오른다. 9일, ≪통일을 염원하는 2002 새해맞이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준비위)에 의하면 10일~12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리는 북측 민화협과의 2002년 민간교류를 위한 실무접촉에는 조성우(민화협)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19명의 대표단이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준비위 관계자는 실무접촉을 통해 남북 대표단은 ≪2002년 민간교류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6.15남북공동선언 2주년 행사, 8.15기념행사, 각 부문별 행사, 그리고 ≪아리랑≫ 참가 등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아리랑≫ 참가에 대한 논의 결과에 대해 준비위 관계자는 ≪특사 회담에서 (≪아리랑≫과 관련해) 얘기된 바 없어 약간 당혹스러움이 있다≫며 따라서 결과도 ≪전혀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내일부터 가질 민간급 실무접촉은 지난달 25일 북측 민화협이 ≪내달 7일부터 9일까지 금강산에서 실무접촉을 갖자≫고 남측 준비위 측에 제의했으나, 남측 준비위 측은 임동원 특사의 방북일정을 감안해 일정 연기를 제안해 이뤄진 것이다.

송정미기자
통일뉴스 2002/04/09

(11면에서 계속)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고상한 미풍이 높이 발휘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는 혁명적동지애로 뭉친 하나의 대가정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동지애가 생명수가 되고 젖줄기가 되여 모든 사람들이 친혈육과 같이 서로 돕고 이끌며 장군님의 한식솔로 굳게 뭉친것이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다.

나이와 생활경위, 초소와 직무는 서로 달라도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과 하나의 피줄로 이어 진 혁명전우이고 동지이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누구나 ≪동지애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을 꽃 피워 나가야 하며 제국주의자들과의 최후의 결전에도 함께 뛰여 들어 승리해야 한다는 각오와 의지를 가져야 한다. 누구나 동지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동지를 위하여 피와 살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는 선군시대의 참된 인간이 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동지애의 사상을 꽃 피우는데서 인민군대가 앞장에 서야 한다.

혁명군대는 동지애를 가지고 적과 싸운다. 사생결단의 무기인 총대를 틀어 쥔 혁명군대에 있어서 동지적단결을 강화하는 것보다 더 중대한 사업은 없다.

오늘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나의 병사, 나의 아들딸이라고 하시며 인민군대의 충성심과 불패의 위력을 믿고 간고한 선군혁명의 길을 헤쳐 나가고 계신다.

지금 우리 인민군대의 사상정신상태는 ≪고난의 행군≫시기와 다름이 없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전민의 앞장에서 준엄한 시련을 헤치던 그때처럼 혁명의 수뇌부를 옹위하는데서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실현하는데서 최고사령관의 총 쥔 동지로서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여 나가야 한다.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고 최고사령관을 끝까지 따르는 위대한 **김정일**혁명강군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쳐야 한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사생결단의 동지애로 굳게 뭉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위업을 끝까지 받들어 나가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장군님의 동지애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심도 있게 벌려야 한다.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김정일**시대의 참된 혁명가로 키우는데서 ≪동지애의 노래≫의 감화력은 참으로 크다. 지도일군으로부터 로동자, 농민, 청소년들에 이르기까지 전민이 ≪동지애의 노래≫를 사랑하고 즐겨 부르며 모든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동지애의 노래≫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한다.

혁명의 길은 아직도 멀고 간고하다.

가는 길 아무리 험난하다 해도 끝까지 가야 할 길이 주체혁명의 천만리길이며 불바람 휘몰아 쳐 와도 생사를 같이 하여야 하는것이 우리의 군대와 인민이다. 동지애가 없으면 혁명도 없고 미래도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동지애의 자랑스러운 력사를 개척하여 온것처럼 앞으로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따라 ≪동지애의 노래≫를 최후승리의 진군가로 높이 부르며 21세기의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갈것이다.

(끝)

방북기간 이북의 외무 및 군사 관리들과 솔직하게 대화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

지난 6일부터 3박4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9일 오후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한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대사는 방북기간 이북의 외무 및 군사 관리들과 솔직하게 대화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그레그 전 대사와의 일문일답.

◎ **김정일**국방위원장을 만났나.
△ 만나지 못했다. 방북기간 외무성과 고위 군사당국자들을 만났으며 이들과 솔직한 대화를 했다. 이들의 이름은 밝힐 수 없다. 그렇지만 북측이 극진하게 대접해 주었다.

◎ 미정부의 메시지를 북측에 전달했나.
△ 나는 이미 퇴임한 사람인데다 비공식 방문이었기 때문에 미 국무부로부터 어떤 메시지도 받지 못했다.

◎ 방북기간 북미대화재개에 관한 느낌은.
△이번 방북으로 북미간의 좋은 관계개선을 위한 기초가 마련되기를 희망하며, 잭 프리처드 대사의 다가오는 방북(upcoming visit)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북미관계에 관한 진정한 얘기(real story)는 프리처드 대사의 (향후) 방북 때 하게 될 것이다.

◎ 임동원특사 방북에 대한 평가는.
△ 성공적(successful)이었다.

◎ 방북중 어떤 느낌을 받았나.
△ 이북이 전력과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요구가 명확하다는 점을 느꼈고, 향후 외부세계가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북은 ≪아리랑≫ 공연연습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다.

권경복기자
연합뉴스 2002/04/09

이적단체 국회입성, 합법화 첫걸음 떼다

한총련 합법화 위한 공청회, 전국평화대행진 제안

≪합법 한총련≫으로의 길을 모색하는 학생운동단체가 강령개정을 시작으로 전국평화대행진을 제안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이 보여 한총련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있다.

8일(월)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한총련 강령개정에 대한 공청회≫는 이적규정의 부당성과 학생운동내부 상황, 합법화의 구체적인 지점 등에 대한 사회각계단체 인사들의 평가와 격려, 조언이 잇달았다.

이날 공청회는 안기부 2차장을 지냈던 손장래(현 대책위 고문) 선생이 참석해 한총련 합법화에 대한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 약속을, 오종렬(전국연합 상임의장) 선생의 한총련 이적규정철회 당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가졌다.

이적규정으로 묶여있어 활동이 자유롭지 못해 전 국민들과 학생들의 힘으로 한총련 강령을 개정하려고 공청회 자리를 마련했다는 윤경회(한총련 대변인) 홍익대 총학생회장은 ≪강령규약개정위원회 토론과정을 거친 후 1차 개정안이 나왔다≫며 ≪애초 한총련 강령에 비해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으나 대중적 단어를 구사하고 내용을 구체화시켰다≫고 전했다.

또 그는 강령 첫 부분에 성격을 명시하는 ≪국제연대≫, ≪학원자주≫, ≪통일≫ 등의 단어를 삽입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회변화에 맞게 여성, 인권, 환경 등 신설 강령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으려는 시도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총련 내부에서 토론을 거쳐 나온 1차 개정안은 본 안에 비해 다소 완화된 느낌이 지배적.

특히 통일부분은 지난해 9기 한총련대의원대회에서 ≪연방제 강령≫을 삭제하고 6.15공동선언이행으로 교체한 후 현재는 7.4남북공동선언과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범 민족적인 통일국가를 수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총련에서 제시한 강령규정에 대해 토론자로 나온 6명의 패널은 지지와 더불어 한총련에 대한 따끔한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한총련 학생들의 변론을 맡으면서 이적규정에 대한 의문을 가져왔다는 김승교 변호사는 ≪강령과 활동의 문제이기보다는 공안당국의 낡고 편협한 시각이 한총련을 이적규정하고 있는 원인≫이라며 이제는 한총련 합법화에 대한 공안당국의 대답이 있어야할 시기라고 언급했다.

성공회대 이남주 교수는 ≪학생운동에 애정을 지닌 사람조차로 한총련에 문제제기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며 ≪그동안 합법화움직임 배경을 한총련 내부에서 설명한다면 합법화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자료집 발간시 간단 명료한 내용으로 하되, 북측과의 동일한 주장을 한다는 대법원의 지적이 있는 만큼 표현에 있어 신중하기를 바랬다. 끝으로 학문부분을 학문사상으로 강조해주길 지적했다.

한총련의 선배로서 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정명수(전대협동우회 회장)씨는 ≪전대협 강령규정이 한총련 것보다 세련되지 못했으나 이적단체로 규정되지는 않았다≫며 ≪결국은 학생운동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가 하는 여부다. 운동대중화를 실현해 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이적단체인 한총련에게 ≪국회≫를 빌려주는데 기여한 송영길 민주당의원은 ≪한총련이 시대에 맞게 다양한 학생대중들의 지지를 받을수 있도록 강령과 규약을 합리적이고 진일보한 방향으로 수정했으면 한다≫며 현정권의 임기가 다하기 전에 한총련 합법화가 이뤄지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파격적인 제안을 가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모았던 정지환(말지, 오마이뉴스) 기자는 합법화를 진행하는 이 싸움을 노무현의 정치행보에 빗대어 설명했다. 그는 ≪심리적연좌제에 맞서 승리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노무현에게는 자발적으로 결성된 노사모의 힘과 언론과의 전쟁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한 후 한총련 역시나 일반학생들의 자발적 지지와 더불어 이싸움에 조선일보를 끌어들여 한총련 합법화를 전사회적 여론으로 형성할 줄 아는 기획력을 가졌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환경 등 강령을 신설한 내용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며 이후 한총련이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임해주길 당부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이강실 대표는 합법화하려는 노력이 대단하다며 ≪이번에 여성문제를 강령으로 규정하려는 것처럼 다른 주제 역시나 광범위하게 포함해 자주민주통일과 여성, 환경 인권 등의 문제를 잘 버무려라≫고 고언했다.

토론자들의 발언을 듣고 난 후 김형주 한총련 임시의장은 ≪이제껏 한총련은 이적규정의 굴레에 몸부림쳐왔다≫며 ≪한총련의 합법화 움직임이 작고 미약한 실천으로 보일지라도 많은 고충 속에서 진

행되는 만큼 국민과 학우들과 더불어 이적규정을 꼭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9) 오전10시께 한총련 김재연의장 후보측은 ≪국민과 함께하는 한총련합법화 촉구 전국평화대행진≫을위한 기자회견을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가졌다.

김후보 측은 ≪매년 전체 학생들로부터 직접 투표로 선출된 대표자들이 이적단체로 규정되는 것은 전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도보로 전국행진을 하면서 전 국민과 대학생들을 만나 합법화의 여론형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총련 소속 단체가 아닌 전국대학생기행연합 산하 서울대학생기행연합(의장 김진실 고려대 통계학)이 동석해 평화대행진을 함께 떠날 의사를 밝혔다.

김재연후보 측에서 제안하는 전국평화대행진은 오늘 12일부터 3일간 영남대에서 진행되는 10기 한총련대의원대회에서 논의돼 최종 확정된다.

백영순기자
유뉴스 2002/04/09

시민단체, 일 교과서 검정철회 촉구

왜곡된 역사인식을 토대로 한 일본 고교용 역사교과서 ≪최신일본사≫가 9일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했다는 사실이 발표되자 관련 시민단체들은 일본의 가속화되는 우경화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일본 정부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촉구했다. 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대표 서중석 외 3인)는 9일 오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에 이어 재발된 왜곡된 역사교과서의 검정통과는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이라며 검정 철회를 촉구했다.

교과서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일본 우익세력이 주장해 온 군국주의 부활이 이번 왜곡교과서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통해 드러났다≫며 ≪≪최신일본사≫는 또 지난해 ≪새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왜곡교과서의 재판이며 황국사관 주장과 미화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측은 ≪작년 역사교과서 왜곡파동을 계기로 연대의 틀을 마련한 아시아 국가들은 이번 일본 역사왜곡에 강력대처할 것≫이라고 밝히고 일본 및 한국정부에 대해 각각 왜곡교과서 검정통과 철회와 왜곡교과서의 재수정 요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이번 왜곡교과서 ≪검정통과 파동≫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면서도 일본의 역사왜곡을 비난하기 앞서 일제하 피해자에 대한 스스로의 진실규명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사무처장은 ≪고교용 왜곡교과서마저 검정을 통과했다는 사실 자체가 일본의 우경화 추세를 잘 보여주는 만큼 역사왜곡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가 결연히 싸워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한일 시민단체는 향후 역사적 진실을 담은 교과서 제작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제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위원회≫의 최봉태 집행위원장은 ≪자국민의 피해 사실에 대해 스스로도 진상 조사에 나서지 않으면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만 교과서 왜곡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또 다른 역사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스스로 먼저 일제하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한겨레 2002/04/09

민주노총 ≪비상대책위≫로 새출발한다

민주노총에 ≪민주≫가 설 자리를 만들자

8일 중앙위원회 소집, 24일 대의원대회때 비대위 구성키로

발전노조 기습 합의안을 두고 민노총 지도부와 민주노총의 정체성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앞으로의 투쟁일정을 결의하는 민주노총 중앙위원회가 8일 열렸다.

민주노총의 임원과 각 지역본부장, 산별·연맹 대표들로 구성된 중앙위원 1백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 30분부터 밤 10시 30분까지 8시간의 마라톤 회의로 진행된 이날 위원회에서 중앙위원들은 단병호 위원장에게 사퇴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하기로 결정, 임시 비대위원장에 이수호 전교조 위원장을 추대했다. 이날 중앙위원회는 조합원의 정서를 반영하지 못하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관료주의에 대한 비판과 근본적인 내부 민주화에 대한 공박이 오갔다.

중앙위원회 개최에 앞서 8일 오전 단병호위원장은 ≪중앙위원 동지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옥중 서신을 통해 ≪4월2일 사태로 실망과 분노, 혼란과 좌절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투쟁에 동참했던 조합원께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단 위원장은 이어 임원총사퇴와 관련해 ≪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상황에 대한 종합적 인지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자신의 거취문제를 포함한 수습대책을 중앙위원들이 판단해 달라고 부탁해 이날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단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중앙위원들 중에는 ≪위원장직을 사퇴하면 안되며 재추대하면서 대오를 정비하자≫는 의견과 ≪단위원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새로운 투쟁을 위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했다. 이 가운데 ≪중앙위원회에서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으며 사퇴 권고나 탄핵이 아니라 단위원장의 판단을 돕는 의견 제출의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재석위원 1백24명 중 69명이 ≪사퇴하지 말 것≫을, 31명이 ≪사퇴할 것≫을 표명했다.

이날 안건토의에 앞서 이번 4·2사태에 대한 지도부의 판단 배경과 지침 방침, 집회를 포기한 이유등에 대한 질타와 질의가 오갔으며 이에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직하자는 제안도 이뤄졌다.

이홍우 전 사무총장은 ≪이번 4·2협상을 발전노조의 단위사업장 문제로 협소하게 생각했고 4월 3일까지 발전노조원이 복귀를 완료하면서 투쟁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생각해 교섭타결에 집착했다≫고 사과하고 ≪민영화를 합의한 것이 아닌데도 정부가 합의문 전문을 민영화 강행의 근거로 삼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중앙위원들은 ≪4월 2일 이후 투쟁이 어려울 것은 일찍부터 예상했던 상황이며 그럼에도 3월 18일 이미 총파업 강행을 결정했고, 갑작스런 지도부의 기습타결로 단위 사업장은 당일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하고 ≪발전노조원의 복귀여부가 갑작스럽게 주요변수로 떠오른 배경이 무엇이냐≫는 비판도 거셌다.

조합원들의 극심한 혼란과 허탈감, 분노 지도부는 아는가?

한편 4월 5일부터 3박4일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농성을 진행한 ≪조합원의 분노를 민주노총에 전달하기 위한 농성단≫(대구 동원금속노조)은 ≪우리의 행동을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말문을 연뒤 ≪현장 조합원들의 상처를 상층 지도부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어 이렇게 상경했다≫고 밝혔다. 농성단은 ≪조합원들 사이에서 민주노총의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돌릴 것인가≫라며 참담한 심경으로 중앙위원들에게 물었다. 동원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번 일로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이어 충북지역본부 김재석 위원은 ≪현장은 동원되는 대상이 아니라 운동의 주체임을 지도부는 명심하라≫고 촉구하고 ≪이번 일은 현장에 대한 지도부의 감각이 그대로 노출된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보건의료노조 최수련 의원도 ≪노동조합의 민주화에 대한 근본적 요청이 표출된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중앙위원들은 지도부 선출방식과 의사결정 구조, 조합원들과의 괴리를 극복하는 민주적 방안을 제도화할 것도 촉구했다.

체포 영장 발부된 발전노동자 14명, 아직도 명동성당에 있다

이후 투쟁방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임원단의 장기공백을 막기위해 조속히 선거를 치루자는 의견과 투쟁에 주력해야 할 때 선거국면으로 접어들면 안된다는 의견도 팽팽했다. 한편 공무원노조 문제, 주5일근무제 관련한 논의도 민주노총의 공백을 틈타 정부가 날치기할 우려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이날 중앙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와 관련해 결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비대위에 선거 전까지 투쟁 책임을 부여한다.

② 비대위의 구성과 집행부 선출, 출범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③ 오는 24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한다.

④ 중앙집행위원회는 임시 비상대책위원회로 활동한다.

⑤ 비상대책위원회의 투쟁계획은 대의원대회에 제출, 승인을 받는다.

⑥ 임시 비대위 위원장은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이 맡는다.

민주노총은 비대위를 중심으로 제자리인 발전노조 사태 해결과 총력 투쟁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날 24일 대의원대회 소집까지 임시 비대위원장을 자임한 이수호 위원장은 ≪4월 2일 합의안에 따라 구속된 노동자에 대한 석방 성명서를 빠른 시일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히고 ≪일련의 일들은 조합원과 국민들의 경고이자 기대≫라며 ≪용광로에서 같이 녹아 신자유주의 물결에 맞서는 거대한 싸움판으로 다시 나가자≫고 촉구했다.

중앙위원회 회의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알려지면서 단위원장의 재추대를 결정한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와 신속한 비대위 활동을 요청하며 공백이 길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조합원들의 불안도 높은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대오를 정비해 4~5월 단기적인 투쟁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장기적으로는 ≪민주≫ 빠진 ≪민주노총≫에 ≪민주≫를 제대로 세울 커다란 숙제를 안고있다.

홍미진기자
시민의 신문 2002/04/09

노점상은 축구공이 아니다

2002년 월드컵경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온 국민이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들떠 있지만 길거리에 자리를 깔고 장사를 해야하는 노점상들은 거리에서마저 쫓겨날 위험에 처해 있다.

정부는 노점상이 침체된 경제와 노동시장의 불안정한 고용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근본적인 측면은 외면한 채, 월드컵경기 등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면 의례 환경미화나 재개발 등의 명목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하거나 예고하곤 한다. 이번에도 종로2가에서 6가에 이르는 2.5Km 구간에 대해 노점상 규모를 1/3 수준으로 줄이고 서울시 12개 지역에 대한 노점상 ≪절대금지≫와 ≪상대금지≫ 구역 등으로 규정하고 서울시 전체에서 4천3백여개의 노점상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서울시는 대책반 6백여 명을 구성하여 단속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외에도 노상적치물, 과태료. 부과건수는 2000년 1만2346건(11억4443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63%나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 9월말 현재 9791건(10억6195만원)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노점상들은 물리적인 단속과 벌과금의 이중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노점상 문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점상 정책의 기조가 도로 관리를 위한 행정적 측면과 공권력 확립이라는 법적인 치안 문제로 한정되어 노점상 정책에 관련된 구조적인 원인과 구체적 실태 파악 조차도 안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6일에 발표된 서울시의 노점정비안도 기존의 노점상 절대금지 및 상대금지 구역을 확대 적용하고 저소득층 일반의 실업정책을 노점정책으로 둔갑시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즉 월드컵경기를 앞두고 노점상 문제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저항을 비켜가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대책으로서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한 명분 만들기일 뿐 실질적인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길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구체적 생활 실태를 고려하지 않고 장소와 거리를 중심으로 구역을 임의로 선정한, 노점상의 생계와 조건을 무시한 탁상 행정의 표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생계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도 비현실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서울시 대책은 전업희망자를 중심으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유도, 생업 및 창업지원, 공공근로 사업 등을 들 수 있는데 대부분 과거에 이미 제시한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서울시의 행정과 노점상은 서로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점상을 단속 대상으로 바라보는 눈부터 거두어야 할 것이다. 함께 ≪노점상대책위≫ 같은 것을 구성하여 거리와 지역적 조건에 맞는 규격화와 자율질서를 통해 도로의 공공성은 물론 생존권을 동시에 확보하고,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양측이 인정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용역반을 고용하기 위해 낭비하고 있는 시민의 세금을 영세노점상을 비롯한 도시 서민들의 복지정책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실업과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복지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 사회의 현실 속에서 노점상은 스스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자구책으로 존재해왔다. 이미 사회적 현실로 존재하는 노점상을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단속하기보다는 노점상 문제를 공론화하고 공식적인 영역으로 끌어내어,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미비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영세노점상의 생계보호 방안 등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오늘날 우리 노점상들도 거리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점상 자율질서대≫를 발족하여 거리의 환경과 질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월드컵경기에 떳떳한 구성원으로 즐겁게 경기가 치러지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노점상이 시 행정가나 단속반의 축구공이 되어선 안 된다.

최인기/ 전국노점상연합 사무처장
인터넷 한겨레 2002/04/08

부시 행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한(조선)민족의 반제자주역량 (4)

차 례

(1) 북(조선)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전술

▶(2) ≪악의 축≫ 폭언이 노린 세 가지 목표

(3) 곤경에 빠지고 있는 부시 행정부

(4) 미국은 결국 무엇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가

(2) ≪악의 축≫ 폭언이 노린 세 가지 목표

둘째, ≪악의 축≫ 폭언에서 부시 행정부가 노린 것, 더 정확히 말하자면 북(조선)을 ≪악의 축≫에 포함시킨 행위가 노린 것은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을 통제하는 목표다.

김대중 정권은 올해 말에 진행될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집권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에 사활을 걸고 있다. 김대중 정권도 다른 역대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권력형 부정비리를 저질러왔으므로 김대중 대통령이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서는 때에는 반대파로부터 가해질 정치보복의 악순환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남(한국)에서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마다 정치파벌들끼리 서로 상대방에게 가했던 정치보복은 이미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만일 김대중 정권이 재집권에 실패하고 반대파가 집권하는 경우, 김대중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반대파로부터 정치적 보복을 당하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과 측근을 겨누고 있는 정치보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재집권해야 하는 지경에 처해 있다. 이것이 김대중 정권이 올해 대선을 앞두고 조급증에 빠지게 되는 이유다.

만일 김대중 정권이 재집권에 실패하더라도 반대파의 정치보복을 피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는 방도가 있다면, 그것은 집권말기에 남(한국)의 대중들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뚜렷한 공적을 남기고 물러가는 일이다. 개혁정책에서 완전히 실패한 김대중 정권에게 그나마 공적을 남길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대북정책밖에 없다.

집권말기에 매우 불리한 조건을 안고 있는 김대중 정권이 대북협상에 나서는 경우, 공적을 남기려는 조급증에 빠진 나머지 자칫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 협상을 진척시키는 ≪실책≫을 저지를 위험이 있다. 바로 이것이 김대중 정권의 대북협상과 관련하여 부시 행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김대중 정권에게 올해 안에 대북협상을 재개하라고 허락하기는 해야겠는데, 김대중 정권이 대북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급증에 빠져 자기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부시 행정부는 김대중 정권에게 대북협상을 재개하라고 허락하기 전에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통제·장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것이 부시 행정부가 ≪악의 축≫ 폭언에 북(조선)을 포함시켰던 배경이다.

이미 세상이 다 알고 있듯이, 부시가 북(조선)에게 ≪악의 축≫이라는 폭언을 한 행위는 한(조선)반도의 분위기를 아연 긴장시켰다. 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수 윌리엄 테일러(William Taylor)는 ≪부시는 집권이래 계속하여 김대중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만들더니 이번에 ≪악의 축≫ 연설로 그를 완전히 좌절시켰다≫고 당시 상황을 묘사하였다. 한(조선)반도에 긴장된 분위기가 조성되면 곤경에 빠지는 쪽은 김대중 정권이다. ≪악의 축≫ 폭언으로 조성된 긴장국면은 대북협상 재개를 준비하던 김대중 정권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고,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을 헐뜯고 있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남(한국)의 정치적 반대파들에게는 힘을 실어주었다.

김대중 정권이 그 곤경에서 벗어나는 길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로부터 대북협상을 재개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내는 길밖에 없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가 또 다시 북(조선)에 대하여 폭언을 내뱉지나 않을까, 혹은 부시가 자기의 대북정책을 아주 금지시키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매우 불안하였을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김대중 대통령이

➡

광고

음악예술론

주체80(1991)년 7월 17일

1. 주체음악
1) 주체시대는 새형의 음악을 요구한다
2) 주체는 우리 음악의 생명이다
3) 혁명에 필요한 것이 명곡이다
4) 음악을 대중화하여야 한다

2. 작곡
1) 음악은 선율의 예술이다
2) 절가는 인민음악의 기본형식이다
3) 악기편성에서 기본은 민족악기와 서양악기를 배합하는 것이다
4) 편곡은 창작이다
5) 다양한 종류와 형식의 음악을 창작하여야 한다

3. 연주
1) 연주는 창조의 예술이다
2) 연주에서 민족적 정서와 현대적 미감을 옳게 구현하여야 한다
3) 연주에서 개성적 특성을 살려야 한다
4) 연주는 정열적으로 하여야 한다
5) 연주가는 창조의 능수가 되어야 한다
6) 지휘자는 악단의 사령관이다

4. 음악후비육성
1) 후비가 튼튼해야 음악예술이 발전한다
2) 특출한 재능을 가진 음악예술인후비는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키워야 한다

≪대통령으로서 정상회담을 많이 해봤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처럼 신경을 써 회담에 임한 적이 없었다.≫고 실토한 것을 보더라도 한미정상회담 직전에 김대중 정권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부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김대중 정권이 대북협상을 재개하도록 허락하였다. 2월 20일에 열렸던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는 ≪대북포용정책을 지지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악의 축≫에 북(조선)을 포함시킨 공갈발언과 대북포용정책을 지지한다는 말은 분명히 모순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그 모순의 뒤에는 부시 행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일관되게 흐르고 있었다.

부시가 김대중 정권이 대북협상을 재개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사실은, 도라산역 행사에서 선명하게 드러났다. 한미 두 정상이 등장한 도라산역 행사는 미리 준비한 각본에 따라 연출된 것으로서, 부시의 방문기간동안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이벤트≫였다고 한다. 부시 행정부는 부시가 서울에 나타나기 오래 전부터 선발대를 보내서 도라산역 행사현장을 두 세 차례 직접 답사하면서 연출각본을 준비하였다. 2002년 1월에는 당시 외교장관이었던 한승수가 도라산역 현장을 방문하였고, 2월에는 외교장관 최성홍이 또다시 도라산역 현장을 방문하였다.

부시는 ≪악의 축≫ 폭언으로 자기들이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확인시킨 뒤에 도라산역에 나타나서 이제부터는 대북협상을 재개하되 자기들의 통제 아래에서 협상을 추진하라고 쐐기를 박았던 것이다.

셋째, ≪악의 축≫ 폭언에서 부시 행정부가 노린 것은 남(한국)에게 미국산 무기를 강매하는 목표다.

부시 행정부는 앞으로 조미 정치협상이 재개되면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의제에 오르게 되리라고 예견하고 있으며, 그 민감한 의제와 관련한 조미 정치협상은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지만 결국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방향으로 결말을 지을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도 예상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전에 내가 발표했던 몇몇 논문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 다시 논하지 않는다.

미국이 해외주둔지에서 무력을 철수하는 경우, 주둔국의 전력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구실을 내걸고 막대한 양의 무기를 팔아먹는 것은 상습적인 행위다. 그러한 상습적인 무기판매는 한국군을 현대화, 첨단화하는 ≪국방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남(한국)에게 미국산 무기를 팔아먹는 사업은 이전의 무기판매수준에 비할 바 없이 방대한 수준으로 계획되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사업에는 요격용 미사일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도입하는 차기 유도무기(SAM-X) 사업, 에이태킴스 지대지 미사일과 육군의 공격용 헬기(AH-X) 도입사업 등이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미국의 보잉사에서 생산하는 전투기 에프(F)-15를 남(한국)에 팔아 넘기는 사업이다.

한국군은 차세대 전투기(Fighter Next, 줄여서 에프엑스(FX)라고 함) 구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한국군이 창설된 이래 단일한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의 군비증강사업으로서, 오는 2008년까지 4조2천억원(32억 달러)을 들여 전투기 40대를 사들이는 것이다. 이 구입사업 입찰과정에서는 미국 보잉사의 전투기 에프(F)-15, 프랑스 다쏘항공사의 전투기 라팔(Rafale), 유럽 4개국이 공동으로 개발한 전투기 유러파이터 타이푼(EF)-2000, 그리고 러시아의 로스보르제니에 수호이(SU-35)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어떤 군사전문가의 계산에 의하면, 대당 약 1억 달러짜리 에프(F)-15의 무게를 순금의 무게와 비교하였더니 전투기 값이 금덩이값과 같다고 한다. 군사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르면, 에프(F)-15는 덩치가 크고 무거운 전자장비와 무장을 싣고 비행하기 때문에 에프(F)-5와 모의 공중전을 벌이면 번번이 패한다고 한다. 에프(F)-15에 실려있는 무거운 고성능 전자장비들은 전투반경이 매우 비좁은 한(조선)반도 상공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되레 비행회전속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며, 따라서 에프(F)-15는 덩치가 작고 가벼워 날쌔게 비행회전하는 북(조선)의 구형 전투기들과 비좁은 공간에서 뒤섞여 공중전을 벌일 경우 격추되는 것은 정한 이치다.

더 놀라운 사실은, 1974년에 실전에 배치되기 시작했던 에프(F)-15는 이제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사가지 않는 기종으로서 머지 않아 생산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되는 낙후기종이라는 것이다. 보잉사는 현재 에프(F)-15를 매년 5대밖에 생산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그 기종의 생산체계를 폐기하지 않고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한의 생산량이다. 보잉사는 미국 국방부와 결탁 · 공모하여 생산체계를 폐기하지 않고 최소한으로 가동시키면서 남(한국)에 에프(F)-15를 팔아먹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만일 남(한국)에게 그 전투기를 팔아먹지 못하게 될 경우 보잉사가 수 억 달러를 들여 설치해놓은 거대한 에프(F)-15 생산설비는 하루아침에 고철더미로 날아갈 판이다.

2001년 11월 15일 워싱턴의 국방부 청사에서 열렸던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 국방장관 럼스펠드를 비롯한 국방부 고위관리들은 한미연합군 전력의 상호운용성을 들먹이면서 에프(F)-15를 사가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였으며, 남(한국) 국방장관 김동신은 그 회의 도중에 열렸던 한미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차세대 전투기 기종선정문제가 논의되었느냐고 기자가 묻자 ≪미국 측으로부터 에프(F)-15 판매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에프엑스(FX)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데서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호환성과 연합작전 능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강매요구에 사실상 굴종 · 순응하겠다는 의사표시였다.

(내일 계속)

한호석(통일학연구소장) - 2002년 3월 15일 작성

조국통일3대헌장

통일운동의 대하 (4)

21세기 **김정일**시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께서는 통일운동의 발전에 상응하게 범민족적인 통일운동주체세력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하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대통일전선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 북과 남, 해외동포들 속에서 폭넓게 전개되고 있는 속에서 1989년 7월 평양에서 소집된 해내외동포들의 조국통일촉진대회에서 조국해방 45돌이 되는 1990년 8월 15일에 판문점에서 북과 남, 해외동포들의 조국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를 열 것을 제의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의 정력적인 영도에 의해 북과 남, 해외의 모든 겨레들이 하나로 뭉쳐 통일운동의 대하를 이루게 되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께서는 또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노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민족의 투쟁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연대의 목소리를 높이도록 현명하게 영도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의 높으신 국제적 권위와 조국통일 노선과 방침의 공명정대성으로 하여 조국통일을 지지하는 세력이 국제적 범위에서 하나로 결집되고 그 대열이 확대되었으며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는 반동세력보다 우세를 차지하게 되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벌써 1977년 6월에는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연락위원회가 조직되고 모든 대륙의 수많은 나라들에 조선인민과의 연대성위원회, 조선통일지지위원회들이 조직되었다.

그리하여 80년대에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과 하나의 조선노선을 옹호하고 관철하며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이남민중의 투쟁을 지지하는 국제적 연대성운동이 더욱 강화되었다.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해인 1987년에는 세계 100여개 나라들에서 이남민중의 조국통일운동을 지지하는 1,000여가지의 연대성조치들이 취해져 이남민중을 크게 고무추동하였다.

90년대에 와서는 미제와 이남의 반동적 통치배들의 민족분열영구화책동을 분쇄하고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기치밑에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는 국제적 연대성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

참으로 우리 민족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영도, 덕망을 그대로 체현하시고 민족자주위업을 굳건히 이어나가시는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를 민족적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있기에 조국통일의 주체를 튼튼히 마련하고 통일운동의 대하를 이룩하게 되었으며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는 세계반동들을 제압하고 조국통일을 적극 지지 성원하는 국제적 연대운동의 대하를 이루어낼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민족은 **김일성**주석의 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대업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며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김일성**주석의 나라, **김일성**민족의 영예를 세계만방에 자랑하며 민족의 부강번영을 이룩해 나갈 것이다.

(끝)